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5 August 2021 8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5 August 2021

발행일 : 2021년 8월 31일

인쇄일 :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계용택, 곽성웅, 김자영,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146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1081461)

목 차

▶ 우리나라의 북극해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박종관)	1
▶ 북극권의 관광산업 현황과 생태관광(이재혁)	9
▶ 세베로 - 야쿠츠키 거점지역(양정훈)	22
▶ 러시아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정체성 연구(계용택)	30
▶ Добыча и экспорт крабов в России(Слепченко В. В)	59

우리나라의 북극해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

박종관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1. 연구 배경 : 지속적인 북극해의 가치 증가

□ 북극의 중요성, 바다의 활용가치 커:

- 북극이 남극보다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북극의 바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면서 북극항로(NSR), 자원 등에 대한 개발 가능성 증대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역설로 북극항로 활용이 가능해진 지금, 북극권에 매장된 수 많은 원유, 가스, 광물자원 및 수산자원 운송 등 북극항로를 통한 최단 거리 해상 운송 루트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음.
- 동시에 북극의 기후변화와 해빙의 지속은 글로벌 차원의 지경학, 지정학 및 군사·안보 환경의 지각 변화 야기

□ 북극 - 경쟁과 협력의 공간:

- 북극이 새로운 미래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북극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국가들이 앞다퉀 경쟁과 상호협력을 벌이고 있는 공간으로 변모
- 주요인은 북극 및 북극권 개발가치 중 경제적인 측면의 안보 비중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

□ 북극 - 우리나라의 '미래산업발전' 공간:

- 북극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항로 및 자원의 가치 등은 우리나라 '미래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북극진출 전략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북극연구 체계가 필요한 시점

2. 연구 목적 : 우리나라 북극 진출 로드맵 구체화 필요성 제기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가열화’로 국제적 수준 논의 필요:
 - 최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대기, 해양, 육지를 따뜻하게 한 것은 명백하다며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경고성 보고서 발표. 즉 지구가 ‘코드 레드(Code Red for humanity)’를 발령.
 - 즉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나 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기후협력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 수준과 범위에서 다루어야 함.
- 우리나라 북극진출 로드맵 구체화 필요:
 - 우리나라는 '13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 획득 후 동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북극정책을 추진, 5년을 주기로 북극정책 수립
 - '18년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8-'22)으로 북극정책 체계화를 이뤘고, 동년 12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여 극지정책의 장기 비전 마련
 - 해양수산부는 '19년 ‘북극정책동향백서’의 발간, 북극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
 - 즉, 북극이 글로벌 차원의 다각적 이해 상충 지역이고 또한 우리나라도 북극이 지경학 및 지정학적 차원의 이해 당사국임을 직시하여 북극진출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성 요구

[그림 1] 북극의 지리적 현황



자료: 외교부 북극소개

3.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추진 현황 및 정책 제언

1)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추진 현황

□ 한국 정부는 북극항로를 신(新)물류루트로 규정하여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활성화와 북극해 자원시장 선도를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

□ '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 획득을 계기로 국내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정책목표는 북극 파트너십 구축, 인류 공동과제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강화, 경제영역 참여를 통한 북극 신산업 창출
- 4대 전략과제는 북극 비즈니스 발굴 및 추진, 과학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북극 관련 제도기반 확충, 국제협력 강화로 구성

□ 동년 7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자원개발 등 북극정책 전반에 걸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한 종합 청사진 마련을 위해 「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을 발표

- 계획에서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상 사업별 관련 부처를 지정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함

□ '18년 해양수산부를 중심 범부처 간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 진출 증진,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북극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 4대 전략은 책임 있는 옵서버로 북극 파트너십 구축, 북극권 상생 경제협력 성과 창출,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강화, 북극정책 추진 역량 강화로 구성

□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18년 12월 향후 30년간 극지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50 극지비전」 수립

-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예측·대응하는 극지연구 실현, 극지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극지경제 창출, 신뢰받는 극지협력 파트너로 위상 확보로 구성
- 7대 추진전략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극지정책 추진, 극지를 통한 신규 에너지·자원 확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극지 미래신산업 활성화, 극지연구 혁신 및 실용화 성과 창출, 국제사회 극지환경 보전활동 참여, 정책역량 강화(연구 인프라 확충·인력 양성 등), 교류 확대 통한 북극진출 교두보 확보

2)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및 차세대 연구쇄빙선 건조 계획

□북극연구·활동 지원법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 변화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글로벌적 관심사가 됐고, 이러한 북극 지역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 활동 지원책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 일본과는 달리 국내 북극해지역 활동 및 북극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일명 북극활동 진흥법¹⁾)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음. 유사 법령으로는 '04년 3월 22일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²⁾이 있었음.
- 하지만 「극지활동 진흥법」이 지난 '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남극 뿐만 아니라 북극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기존 극지 활동 내 실화와 함께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책 마련과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게 됨.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의결:

- '21년 6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통과로 북극연구 전담 쇄빙선 건조 결정 및 북극연구 활성화에 청신호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지난 '15~'18년까지 추진되었던 바 있으나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국과학기술평가위원회는 쇄빙선이 불필요하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현실화 되지 못했음.
- 이후 '20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입했으며,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50년까지 '세계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극지연구소의 숙원사업으로 차세대 쇄빙선 건조를 추진 중이며, 극지연구에 요구되는 얼음을 깨는 능력을 강화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북극항로 운항을 통해 극지 진출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북극 연구 능력을 강화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22년부터 총2천774억을 투입해 설계를 시작으로 '27년부터 본격운항으로 북극 연구를 전담할 예정
-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5m 두께의 얼음을 3노트(5.6km/h)의 속도로 쇄빙할 수 있어 1m 두께까지만 얼음을 깰 수 있는 기존의 '아라온'호 보다 능력이 개선될 예정이며,

1)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000호는 2020년 6월 15일부로 입법예고 되고 있는데, 다음을 제정이유로 한다. 첫째,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보존·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둘째, 그러나 남극에서의 활동과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셋째, 이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보존·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남극활동법은 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 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규모도 1만5천450t으로 2배 이상 커질 예정. 승선 인원은 100명으로 최장 75일간 물자를 공급받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해 친환경 운항도 가능³⁾

- 특히 차세대 연구쇄빙선 건조 계획 추진은 우리나라 보다 극지연구 영역에 있어 물리적 환경 조건이 앞서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도 향후 북극 연구에 대한 연구영역 조건에 있어 경쟁력 강화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음.

※ 중국은 지난 2016년 핀란드 아커 아틱 테크놀로지⁴⁾와 상하이 소재 해양설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설계한 쇄빙선 “쉐룽 2”호가 2019년 7월 건조 완료되어 상하이에서 취역했으며, 2021년 현재 남북극을 오가며 극지연구 및 탐험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쉐룽 2”호는 길이 122.5m, 너비 22.3m에 배수량은 1만3천996미터톤으로 최고 속력은 27.8km/h이며, 한번 항해에 나르면 승선원 90명이 60일간 3만7천km 이상을 탐험할 수 있음. 중국은 지난 1993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쇄빙선 “쉐룽 1”가 있었음.

※ 일본은 2026년 북극 연구를 위한 쇄빙선 진수를 목표로 LNG 추진 북극탐사연구 쇄빙선 건조 계획에 도입했으며, 일본 교육과학기술부는 2021년 4월 - 2022년 3월 재무기간동안 3.1억 달러를 투입하여 북극 연구쇄빙선 건조를 시작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 밝힘. 총톤수 1.3만 톤, 전장 128미터의 선박은 LNG-연료유의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갖추고 1.2미터 두께를 쇄빙할 수 있는 선박으로 계획되고 있음. 일본은 지난 2009년 진수된 남극 탐사쇄빙선 Shirase호(총톤수 12,000톤, 전장 138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해양자위대가 운영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 우리나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북극과 북극권의 주요 행위자로서 북극항로, 북극 자원 및 기타 가치를 위해 다음의 정책 제언:

첫째, 한국은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와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주요 수혜 국가가 될 확률이 높음으로 북극권 변화와 국제정치적 역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한 뒤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함.

둘째, 한국은 세계적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쇄빙선 건조역량과 기술 수준의 고도화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하며, 향후 쇄빙선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운영 및 관리

3) 해양수산부, “차세대 쇄빙연구선으로 북극 연구 도약 시작한다.” 해양개발과, 2021.6.28.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즉 러시아 야말반도 LNG 및 기단반도 LNG사업에 관련 업체에 대형 LNG 유조선 판매에 그치지 말고, 북극 관련 자원을 직접 수송 및 도입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함.

셋째, 북극항로 및 항공로 개항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 물류거점으로서 역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특히 북극의 활용을 북극항로와 항공로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교통망 연결을 준비하여 러시아 북극권 및 시베리아 자원을 내륙을 통한 물류수송 연결망 구축을 통해 향후 미래자원 도입 다변화 및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구축의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

넷째, 우리나라는 북극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임을 인식하여 북극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중·일 3국간 동북아의 북극해 출입 관문이 동유라시아 북극권과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공동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섯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이어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마련된 「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되었기는 하나, 지금부터 이를 토대로 북극 연구개발·보존·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을 현실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인류 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할 로드맵 작성 필요

여섯째, 최근 중국 및 일본에서 북극을 지향한 쇄빙연구선 추가 건조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차세대 쇄빙선 건조에 부합되는 북극과학 경쟁력 확대 및 과학 영향력 강화 조건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북극연구를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연구 로드맵 작성 필요. 특히 그동안 한국의 특징상 비북극권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문이나 국제협력에서만 강화방안을 확대해 왔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 부합되는 인문·사회적 종합연구 공간으로도 차세대 쇄빙선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일곱째, 이웃 국가의 중국 및 일본과 같이 북극 컨트롤 타워를 향상시켜야 함. 즉 중국은 한국의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국무원, 일본은 최고격인 일본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내각 장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국내 산학연이 공동 융복합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한국북극컨소시엄(KoARC) 등을 총리실 하에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시스템 지원 및 강화 필요

여덟째,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북극 이해 당사 국가로서 북극 원주민 전통보호와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문·사회적 차원의 북극 원주민과의 교류를 확대 가능한 프로그램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즉 북극권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 분명히 확대될 것이고 그 규모와 범위는 국제경제 여건에 따라 개발시기와 타당성이 결정될 것이며, 동시에 북극권에서의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세계 환경 단체와 원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자칫 국제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됨.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이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도 지속가능한 북극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인식해야 할 것임.

아홉째, 부산, 울산, 강원 등 지자체의 북극정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즉 지자체의 북극권 국가의 지자체간의 교류확대는 정치안보적 영향을 다소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고려해 지속성을 갖는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열째, 글로벌 차원의 북극에 대한 중요성은 높으나 우리나라 대국민 북극 공감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 따라서 북극에 대한 대국민인식이 구축될 수 있는 홍보력을 키워야 함을 인식하여 기초과학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연구 지원책을 넓혀 북극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통해 단일화된 북극정책 공감력 조성 및 북극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한 인문·사회학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지원책이 필요함.

【참고자료】

- 김승섭, “‘북극연구 컨소시엄’ 창립... 국내 21개 북극연구기관 참여,” 해양한국, 2015.12.
- 박종관, “한국 북극해 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정, 한계점,”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정책보고서 시리즈 NO.2021-02), 2021.
- 박영민, “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26집 3호, 2018.
- 서현교, “한국의 북극정책 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와 분석,”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 23권 1호, 2019.
- 정원조, “북극항로 물류 수요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울산연구원) 2020.
- 이은규, “북극해 환경변화 대응 울산지역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울산발전연구원) 2014.
- 이투데이, “2050년까지 극지활동 7대 선도국 도약...정부 ‘2050 극지비전’ 선포,” 2018.1 2.09. <https://www.etoday.co.kr/news/view/1697219>
- 국제신문, “[사설] 극지활동진흥법 국회 통과, 부산에 새 기회로 삼아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0329.22023008696>
- 뉴스타운, “유엔 IPCC 보고서, 지구 ‘코드 레드’ 이대로는 안 돼,”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44>
-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눈앞에 보이는 ‘북극’...국토부, 북극까지 공간정보 구축 추진 우리나라,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 북극 공간정보 확보 시급,” 『보도자료 참고』 2013.5.16.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극지의 기회를 여는 도전,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전략 마련-,” 2018.
- 관계부처 합동,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2013.7.25.)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2013.12.10.)
- 해양수산부, 2018년 12월 해수부가 선언한 「2050 극지비전」 (국·영문)
- 해양수산부, 2019년 북극정책동향백서(2020년)
- 해양수산부, “차세대 쇄빙연구선으로 북극 연구 도약 시작한다,” 해양개발과(2021.6.28.)
- 극지해소식 101호, 2021.
- 극지연구소
- 북극지식센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외교부,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35
- 외교부 북극소개, https://www.mofa.go.kr/www/wpge/m_4045/contents.do

북극권의 관광산업 현황과 생태관광

이재혁

(북극학회 회장)

북극해 지역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환경보전지역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이 지역은 경제적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으로 북극해를 통한 항로의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북극권의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 북극권의 관광자원

북극의 관광객 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재 관광은 북극 지역에서 전례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북극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은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졌다. 관광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북극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있고 자연경관을 포함한 관광자원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양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에코투어리즘을 만족시킬 수 있어 미래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1) 인문적 관광자원

관광자원은 크게 인문적 자원과 자연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적 관광자원에는 그 지역의 문화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레크리에이션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북극지역에는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가며 각 민족의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소수민족들이 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북부지방)와 콜라 반도 등 러시아 백해 이서 지역의 북극권(Arctic Circle) 지역에 거주하는 사미(Sámi, 또는 Saami)족은 유럽지역 북극권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이다.

북극권 소수민족들의 생활의 모습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극권 개발로 인해 소수민족들의 생활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문화는 북

극지역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며, 이들의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통의식 등을 공연하는 방법들은 통하여 중요한 인문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한편, 관광은 문화유산의 유지 및 재 개념화에 기여한다. 관광은 오늘날 북극 사회에서 잠재적인 지역지식을 재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극 탐험의 역사와 그의 장소적 유적, 전설과 설화의 장소 등도 중요한 인문적 관광자원이 된다. 현대의 관광에는 콘텐츠에 관한 내용 증대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 분야도 북극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생태와 경관, 문화재 등의 단편적인 주제에서 문화와 테마 중심의 관광과 콘텐츠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감상과 여행의 관광 개념에서 탐사와 문화활동으로의 변화추세도 보여, 문학관광, 산업관광, 다크투어리즘 등의 새로운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 북극권에 관련된 콘텐츠의 배경지역도 핀란드 북극권의 로바니에미에 조성된 ‘산타마을’과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지역으로 주목되는 노르웨이의 북극지역 경관 등은 주목받는 인문적 관광자원이다.



[그림 1] 핀란드의 산타크로스 마을



[그림 2] 노르웨이 북극권 경관과 영화 ‘겨울왕국’ 포스터

2) 자연적 관광자원과 생태관광

자연적 관광자원은 관광자원 가운데 가장 원천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현상이 관광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북극지역은 광대한 공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인간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자연적 장애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천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102

개의 국가 자연 보호 구역, 47개의 국립공원과 69개의 주 자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많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문화기구)는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엔(UN)의 특별 기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연문화 랜드마크들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들은 캄차카 화산(1996년 등재), 시호테-알린(Сихотэ-Алинь) 산맥 (2001년 등재), 브란겔섬 (Остров Врангеля, 2004년 등재), 레나 석주 (Ленские столбы, 2012년 등재)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 연말 러시아의 로스투어리즘(Rosturism)사는 2014년부터 러시아 북극지역에 외국인 관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¹⁾ 또한, 러시아관광청은 2014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북극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북극지역은 광대한 공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인간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자연적 장애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천연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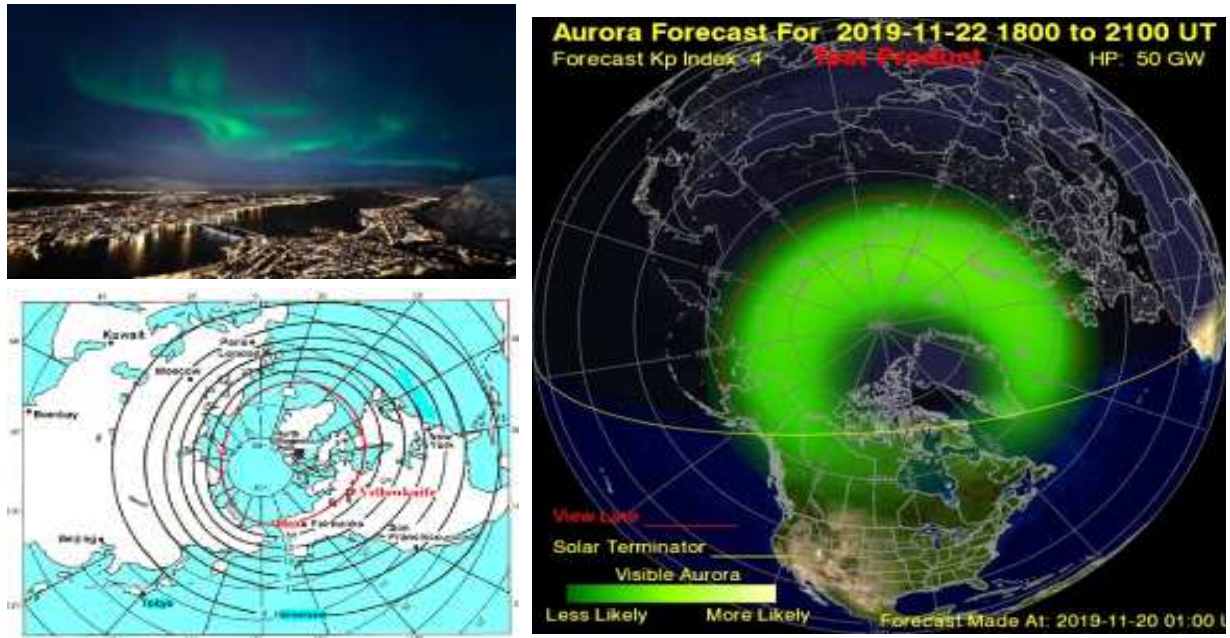
이 지역의 섬은 대부분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암은 기존의 암석이 침식되고 풍화되어 미세한 작은 파편으로 형성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미세한 퇴적물은 압축되고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이 지역의 독특한 특징은 후두스(Hoodoos)라는 암석층이다. 퇴적암은 용기되고 바람과 물의 침식에 의해 암석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된다.

주요한 지형적 자연경관은 땅 아래에서 물이 얼면서 형성된다. 물이 얼면서 땅이 팽창하고 땅이 약 해지면 표면이 갈라지면서 특이한 월뿔 모양의 지형을 형성한 핑고스(Pingos), 산과 추운 기후에서 발견되는 느리게 움직이는 얼음의 흐름인 빙하(Glaciers), 빙하 가장자리 또는 중간에 퇴적물이 싸여 형성되는 빙퇴석(Moraines), 얼음은 땅을 뜯어내고 굽고 굽어내며 지구 표면을 가로 질러 움직여 고르지 (얇은 크기의 바위 조각이 생성되는 빙하구릉(Glacial Till), 얼음이 후퇴 한 후 작은 호수가 형성되는 빙하호(Kettle Lakes) 등이 있다. 북극권 땅은 영구적으로 0°C 아래에 있다. 영구동토층 표면의 활성화층은 여름철에 해동되어 식물이 성장할 수 있다. 유콘 준주의 북부 해안은 해저 영구동토층(Permafrost) 지역이다.

캐나다 북극지역에는 11개의 국립공원과 5개의 국가기념물 및 역사유적이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과 인문적 관광을 포함한 탐방지역들이다.

최근 북극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탐방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백야(화이트 나이트)와 극광(오로라) 관광은 북극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 <http://www.itar-tass.com/spb-news/813070>(검색일 : 2015년 10월 17일)



[그림 3] 북극권의 극광과 NOAA의 예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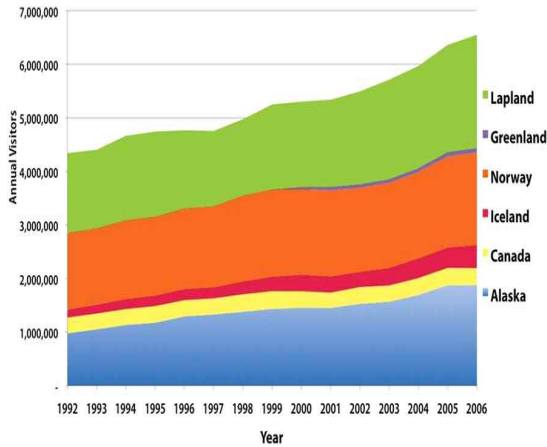
자료: <http://www.swpc.noaa.gov/products/aurora-3-day-forecast>(검색일 2019.11.25.)

2. 북극권의 관광산업 현황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세계 최고의 고용산업이다. 북극권 관광 수요 변화 요인은 해빙에 따른 북극해 관광 증가로 ‘북극권 관광’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극해 지역의 독특한 동식물상, 해빙 등 자연 경관은 소수의 사람들이 탐방할 수 있는 특수한 관광지역이며, 북극권의 문화유산 및 인류의 북극 탐험 역사 등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관광산업은 변화하고 있다. 북극권 관광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꼭 봐야 할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목적지로 여행하고 있고, 여행을 위한 가처분소득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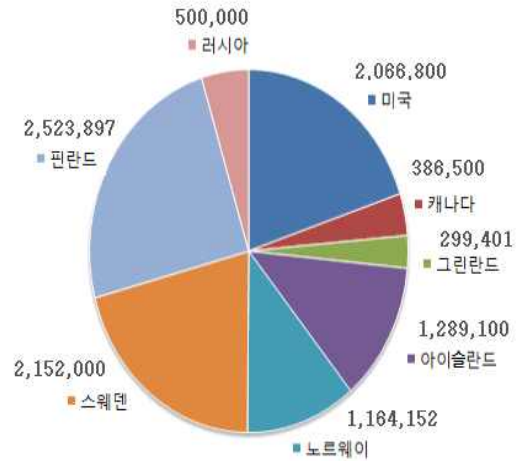
북극권의 관광객 방문 추이를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라플란드 지역과 노르웨이 지역,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아이슬란드, 캐나다의 관광객은 적은 편이고, 러시아의 북극권 관광객은 수천 명으로 추정된다.

그린란드의 경우, 최근 세계적 관심과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관광객의 증가를 이끌었다. 그린란드에서 관광은 어업과 광업에 이어 그린란드의 3대 경제 기둥 중 하나이며,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유망한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림 4] 북극권 관광객 현황(1992-2006)

(자료 : Ginny Fary & Anna Karlsdottir, "Observing Trends and Assessing Data for Arctic Tourism", AON Social Indicators Project,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2008. <http://www.iser.uaa.alaska.edu/Projects/SEARCH-HD/tourism.html>)



[그림 5] 북극권 관광객 현황(2017)

(자료 : Patrick T. Maher, 2017, "Tourism Futures in the Arctic," in: K. Latola, H. Savela (eds.), The Interconnected Arctic – UArctic Congress 2016, Springer Polar Sciences, DOI 10.1007/978-3-319-57532-2_22, pp.213-220, P.216)

2006년 약 650만 명 수준이었던 전체 북극권의 총 관광객수는 2017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가장 놀라운 증가는 2008년 277,800명에서 2017년 1,289,100명으로 거의 6 배 증가한 아이슬란드이다. 모든 관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표 1> 북극지역의 관광객 수 추정(2017년)

국가 / 지역		관광객수 (추정)	자료
미국	알래스카	2,066,800	https://www.commerce.alaska.gov (Accessed January 2017); April 2016 update on 2014-2015 data for all out-of-state visitors
캐나다	Yukon	255,000	http://www.tc.gov.yk.ca (Accessed January 2017); 2015 estimated total overnight visits to the entire territory
	Northwest territories	93,910	http://www.iti.gov.nt.ca (Accessed January 2017); 2015-2016 total visitors to the entire territory
	Nunavut	16,750	http://nunavuttourism.com (Accessed January 2017); 2015 exit strategy - non-resident visitors
	Nunavik (Northern Quebec)	1,000	http://www.tourisme.gouv.qc.ca (Accessed January 2017); 2010 report for 2008 visitor volume in Provincial zone 21
	Nunatsiavut (Northern Labrador)	19,840	http://www.btcrd.gov.nl.ca (Accessed January 2017); 2015 accommodation occupancy for Provincial zone 1 (Rigolet-Nain, Labrador)

Greenland		80,862 (항공기 방문)	http://www.tourismstat.gl (Accessed January 2017); 2015 Greenland Tourism statistics 국제선 항공기 출발과 숙박
		218,539 (쿠르즈 방문)	
Iceland		1,289,100	http://www.ferdamalastofa.is (Accessed January 2017) 2015 international visitors to Iceland
Norway	Svalbard (Norway)	118,614	http://syssemmannen.no (Accessed January 2017); 2014 Longyearbyen 숙박
	Norway (Nord Norge - northernmost 3 counties)	1,045,538	http://ec.europa.eu (Accessed January 2017); 2016 주민 제외 숙박
Sweden (Norrbotten county)		2,152,000	http://www.lansstyrelsen.se/norrbotten (Accessed January 2017); 2014 Facts about Norrbotten report; 2013년 숙박관광객
Finland (Finnish Lapland)		2,523,897	http://visitfinland.com (Accessed January 2017); 2016 등록된 관광숙박객수
Russia		500,000	Tzekina M (2014) Estimation of tourism potential of Russian Far North. PhD,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recreational geography. Moscow State University: Moscow
합계(추계)		10,38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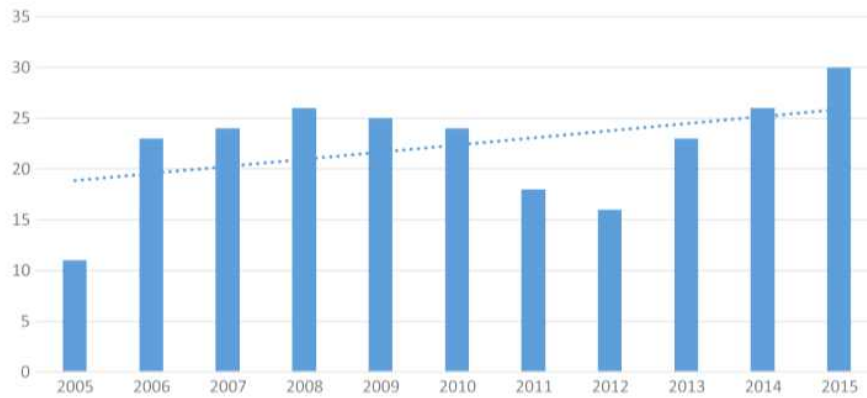
(출처 : Patrick T. Maher, 2017, "Tourism Futures in the Arctic," in: K. Latola, H. Savela (eds.), The Interconnected Arctic – UArctic Congress 2016, Springer Polar Sciences, DOI 10.1007/978-3-319-57532-2_22, pp.213-220, P.216)

최근의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으로 인해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권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북극해 관광을 살펴볼 때 캐나다 북극을 방문하는 크루즈 선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에는 1984년에 비해 22배에 해당하는 크루즈 선박의 관광이 이루어졌다.²⁾ 해양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극해 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 될 경우 북극해 전역을 관통하는 크루즈 운항도 가능하며, 북극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국은 관광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크루즈관광은 숙박, 식음료, 위락시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선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관광지를 기항하면서 관광자원을 접하는 선박관광이다. 즉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일반 여객선(페리선)과 달리 전체 여정 자체가 위락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여행으로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관광하게 하는 여행이다.³⁾ 장기적으로는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될 경우 북극해 전역을 관통하는 크루즈 운항도 가능하다. 아직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극동지역에서는 해상 연계를 통한 크루즈관광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 STEWART, E.J., HOWELL, S.E.L., DRAPER, D., YACKEL, J., TIVY, A., 2007., "Sea Ice in Canada's Arctic: Implications for Cruise Tourism," *ARCTIC*, VOL. 60, NO. 4(DECEMBER) p.370.

3) 김성귀, 2007, 『해양관광론』, 서울 : 현학사, 145-146.



[그림 6] 캐나다 북극해 크루즈 선박 운항(2005-2015)

(출처 : Emma Stewart, Jackie Dawson & Margaret Johnston, "Risk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change in the cruise tourism sector: community perspectives from Arctic Canada," The Polar Journal, 2015 Vol. 5, No. 2, 409)

북극 크루즈 관광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북극의 관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전에는 외딴 지역이 크루즈 선박에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난화 기후는 북극해 관광의 용이성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얼음 변화의 특성과 분포에 따라 탐색하기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극지방에서 유람선 재난의 가능성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 유람선 운영자에게 심각한 문제 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선박에서 연료가 누출되거나 선박이 극지방에 완전히 잠길 경우 잠재적인 사고로 인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고 없이도 선박 교통량 증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기본 우려도 있다.

2010년 MV Clipper Adventurer가 크루즈 도중 캐나다 북극 누나부트의 Coronation Gulf에 있는 암초에 좌초했다. 배의 운영자는 원래 미발견 암초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위험이 이미 보고되고 Canadian Hydrographic Service에 의해 문서화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안전하게 이송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유람선 Clelia II가 1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모두 대피시켰고, 강한 해류가 바위 해안선으로 밀려 선박을 무력화 시켰다. 운 좋게도 근처에 도움을 제공 할 다른 배가 있었다.⁴⁾

더욱이 북극에서 선박과 관련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북극위원회를 통한 협력이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문제 영역이 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2011년 5월 누크에서 열린 북극협의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극의 항공 및 해양 수색 및 구조" 조약은 북극지역을 위해 작성된 최초의 국제협약이 되었다.

북극의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잠재적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피해를 입히는 재해보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북극의 크루즈 관광으로부터

4) <https://www.thearcticinstitute.org/cruise-tourism-arctic-disaster/>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 한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 해양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지만 생태, 경제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북극권 주민의 커뮤니티의 문화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북극지역 생태관광의 운영 방향

북극권 지역은 북극해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하여 북극해 생태관광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환경보전지역의 하나인 북극해 지역은 경제적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북극지역의 관광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문화적 이해를 장려하고, 일반적인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여행'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에코투어리즘의 심화된 형태로 사람, 장소, 지구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형태에 주력한다.

생태관광(ecotourism)은 대중관광의 대체물로서, 보통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파괴되기 쉬운 원시 상태의 보호지역 또는 소규모 지역을 책임 있게 여행하는 것을 말하며, 세계 각국은 환경의 보전과 관광행위의 적합점으로 생태관광의 지지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약칭 WWF)에서는 북극 전역의 관광 사업자, 정부, 연구원, 보존 단체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관광에 대한 최초의 북극 특정 지침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자연기금-북극 프로그램(WWF-Arctic Programme)은 '북극 관광을 위한 10대 원칙'을⁵⁾ 제시하고 있다.

북극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 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여름철 중심의 한정된 여행 기간은 장애요인이 된다. 접근성의 난이도에 의한 높은 관광 경비 축소가 필요하며, 동식물상, 경관과 탐험 역사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정보제공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코미공화국 정부가 최근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북극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극지방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 클릭 북극> 관광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⁶⁾

5) 북극 관광을 위한 10가지 원칙(Ten Principles for Arctic tourism) : 1. 관광과 보존의 공존 2. 야생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지원 3.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 사용 4. 소비, 폐기물 및 오염을 최소화 5. 지역 문화 존중 6. 역사적, 과학적 장소 존중 7. 북극 지역 사회는 관광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8. 숙련된 직원에 의한 책임감 있는 관광 9. 북극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행 10. 안전 수칙 준수([HTTP://arcticwwf.org/work/people/tourism/](http://arcticwwf.org/work/people/tourism/), 검색일 2019.12.13)

6) "Арктика в один клик": Коми создаст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латформу по Заполярью(<https://ria.ru/2020>)

지구온난화는 북극지역의 토지, 생물 다양성, 주민의 문화 및 전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극지역은 토착주민들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극지역은 향후 10년 동안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장은 천연 자원 부문과 관광 여행, 상업 어업, 문화 산업다음과 같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자원 개발, 관광 및 해운을 포함한 특정 경제 부문은 기후 변화가 북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활동은 사람, 인프라 및 생태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오고 수색 및 구조 및 재난 대응 능력에 추가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 지역 및 지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학계는 온난화로 북극해가 점차로 해빙되어 2020년에는 6개월, 2030년에 1년 내 내 일반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이미 북극항로의 얼음분포 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⁸⁾ 북극해 안전항로 선정에 필요한 얼음상태, 얼음경계 정보 및 해양과 대기수치 예측자료 등을 수집해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러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북극해로 나아가는 한국의 역할의 하나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북극권과 전 지구의 환경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관광산업은 어떤 식으로든 오염을 발생시키며 지구 기후변화 현상에 작용한다. 특히, 북극권 관광은 지난 10년 동안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독특한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보기 위해 북극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극권에는 고유한 환경 보호를 통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지역 규정이 없다. 관광행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광객의 행동을 통제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북극권의 관광에는 여행자와 조직기구의 책임 있는 관광행위가 필요하다. 북극권지역의 탐방에는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각 지역에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탐방예약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아이슬란드 지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관광에⁹⁾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교적 많은 탐방객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선의 운항이 효과적일 것인데, 이 경우에는 선박이나 여행객이 발생하는 모든 오염 배출물이 북극해 내부에 버려지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취해야만 한다. 급성장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북극관광의 북극권의 부족한 숙소문제의 해결에는 모듈식 조립형 호텔(글램핑)이 관광객의 흥미를 끌어 북극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제시도 나타난다.¹⁰⁾

1118/resurs-1584960792.html 검색일 2020.11.19)

7) <https://www.northernstrategy.gc.ca/eng/1351104567432/1351104589057>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7/0200000000AKR20151017059300003.HTML?input=1179m> (검색일: 2015년 11월 18일).

9) 과도관광(overtourism)은 수용 능력을 뛰어넘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합성어이며, 관광지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용량의 한계치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관광지의 환경악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10) 'Эксперт считает, что глэмпинг может стать быстрорастущим сегментом аркт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관광산업을 위한 중요한 한가지는 교육이다. 관광과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췄다해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은 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인 관광 서비스 및 경험을 개발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북극관광의 특수성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관광 인력 훈련을 위해서는 지역 지식 및 전문적인 기술의 제고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UN 총회에서는 2017년을 “국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북극관광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정치가 아닌 국가적 또는 학술적 협력을 통해 나타날 것이며, 산업계 및 지역 사회 파트너의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관광으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갖는 반면에, 관광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우려와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긴장은 계속 될 것이다. 합리적인 북극관광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모든 공공, 민간 및 시민 이해 관계자의 역할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https://tass.ru/obschestvo/10008871>, 검색일 2020.11.17.)

【참고자료】

- 김성귀, 2007, 『해양관광론』 현학사.
- 이재혁, 2015,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자원과 한국 관광산업 개발 방안,”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9권 2호, 103-128.
- , 2016,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 개발 계획 동향.” 『북극연구』, No.5 Spring, pp.63-68.
- , 2019, “러시아 북극권의 생태관광,” 『2019 북극협력주간 학술세미나: 북극권 자연/인문 자원 발표논문자료집』, 1-13.
- , 2019, “사할린섬의 한인과 다크 투어리즘,”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4권, 239-249.
- , 2020, “국제 생태관광 공간 북극권의 관광자원과 활용방안.” 『국제협력 공간으로서의 북극권』 2020 북극협력주간(APW) 북극 인문사회연구 세미나 자료집, 51-78.
- , 2020, “러시아 북극권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러 협력.”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4권 2호, 63-93.
- Dierks, Jan, 2002, Tourismuskonzept für die Republik Sakha(Jakuti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thischen und ökologischen Aspekte des Jagdtourismus, Ernst-Moritz-Arndt-Universität Greifswald, Botanisches Institut Fachrichtung Diplom-Landschaftsökologie und Naturschutz, 13 Juni.
- Dieter K. Müller·Linda Lundmark ·Raynald H. Lemelin(Ed.), 2013, New Issues in Polar Tourism -Communities, Environments, Politics(Springer Dordrecht Heidelberg New York London.
- Edes, Mary E., 2008, “Ecotourism in the Arctic Circle: Regional Regul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Concerned Environmentalists from Further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Global Business & Development Law Journal, vol 21, Article 9.
- Ellenberg, E. Scholz, M., Beier, B., 1997, Oekotourismus(Heidelberg·Berlin·Oxford: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 Emma J. Stewart, Jackie Dawson & Dianne Draper, "Cruise Tourism and Residents in Arctic Canada: Development of a Resident Attitude Typology,"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18, 95-106. DOI 10.1375/jhtm.18.1.95

- Emma Stewart, Jackie Dawson & Margaret Johnston, 2015, "Risk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change in the cruise tourism sector: community perspectives from Arctic Canada," *The Polar Journal*, Vol. 5, No. 2, 403-427, <http://dx.doi.org/10.1080/2154896X.2015.1082283>
- Engberding, Hans und Bodo Thöns, 2003, *Transsib-Handbuch: Unterwegs mit der Transsibirischen Eisenbahn* (Berlin: Trescher-Reihe).
- Han, J-M· Kim, J-H· Yi, J-H., 2020, Definition of Arctic Spaces based on Physical and Human Geographical Division,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olume 12 Issue 1 June, 001-016
- Jackie Dawson, Emma J. Stewart, Margaret E. Johnston & Christopher J. Lemieux, "Identifying and evaluating adaptation strategies for cruise tourism in Arctic Canad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4:10, 1425-1441, DOI: 10.1080/09669582.2015.1125358
- Patrick T. Maher, 2016, "Tourism Futures in the Arctic," in: K. Latola, H. Savela (eds.), *The Interconnected Arctic – UArctic Congress*, Springer Polar Sciences, DOI 10.1007/978-3-319-57532-2_22, pp.213-220, 2017.
- Raynald H. Lemelin, Jackie Dawson, 2014, "Great expectations: Examining the designation effect of marine protected areas in coastal Arctic and sub-Arctic communities in Canada." *The Canadian Geographer / Le Géographe canadien*, 58(2): 217-232
- Seelmann, Katrin, 2012, *Der völkerrechtliche Status der Arktis: der neue Wettlauf zum Nordpol* (Wien: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 Suzanne de la Barre, Patrick Maher, Jackie Dawson, Kevin Hillmer-Pegram, Edward Huijbens, Machiel Lamers, Daniela Liggett, Dieter Mueller, Albina Pashkevich & Emma Stewart. 2016, "Tourism and Arctic Observation Systems: exploring the relationships," (Citation: *Polar Research*, 35, 24980, <http://dx.doi.org/10.3402/polar.v35.24980>)
- Лукичев А.Б., 2012, "Экотурист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Журнала Экотуризма* №4, 3-15.
- Матвеевская, Анна Сергеевна, Безуглы, ДмитрийСергеевич, 2018,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продвижении "Русской Арктики" как туристской дестинации", *Научный вестник Ямало-Ненец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3 (100), 27-3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 А С П О Р Я Ж Е Н И Е от 31 мая 2014 г. № 941-р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UNEP 홈페이지 <http://www.unep.org/regionalseas/>

국제대륙붕관리국(ISA) 홈페이지 <http://www.isa.org.jm>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 <http://www.imo.org>.

미국지리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홈페이지 <https://www.agu.org/>

북극위원회(the Arctic Council) 홈페이지 <http://www.arctic-council.org>.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https://arcticwwf.org/work/people/tourism/>

NOAA(<http://www.swpc.noaa.gov/products/aurora-3-day-forecast>)

<http://rus-arc.ru/ru>

<http://russiafocus.co.kr/multimedia/video/2015/09/30/443879>

<http://www.itar-tass.com/spb-news/813070>

<http://www.scienceforum.ru/2015/discus/794/11260>

<http://www.wttc.org/Welcome to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https://www.northernstrategy.gc.ca/eng/1351104567432/1351104589057>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https://www.oag-bvg.gc.ca/internet/English/parl_cesd_201410_03_e_39850.html)

캐나다 의회 RNNR 위원회 보고서; RESOURCE DEVELOPMENT IN NORTHERN CANADA 캐나다 북부의 자원 개발 (<https://www.ourcommons.ca/Docum>)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
“Северо-якутская опорная зона”

양정훈

(수원대학교 교수)

1. 개관

- 러시아는 2030년까지 경쟁력 있는 북동항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 계획임.
- 이 인프라 건설계획은 새로운 산업 지역형성을 목표가 주된 발전 규정임.
- 러시아는 러시아 북극권 지역을 8개의 주요 발전 지역을 나누었는데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Северо-якутская опорная зона)이 그들 중 하나임.
- 전략적 발전지역은 일정한 경제 활동에 있어 특혜를 주는 의미로서의 표현이 아니고, 마치 그 지역이 골격과 같은 지역으로 지역 전체 공간에 발전의 의미.
 - ▶ 새로운 산업은 북극 지역을 기반으로 지리-전략적 접근에 의한 발전을 토대로 전개
-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에 대한 연방법’에서 국가의 안보 및 북극 주요지역 개발 그리고 북극 전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의 보완을 목적으로 지역 발전 이해를 제시
 - ▶ 북극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원주민들의 완만한 경제적 생활환경 조성 및 투자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 ▶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

2. ADT(선도개발구역)과 프로젝트와 당면과제

- 지방 균형 정책의 가장 좋은 사례로 부각 된 극동 사례가 ADT 추진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 양호하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2018년까지 극동은 ADT와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고 이에 따라 330개의 외국인 투자 가능 프로젝트들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 건수는 66건에 불과

- 외국 투자의 어려운 접근 환경 요인
 - 1) 러시아 정부 지원사업 인프라 부족
 - 2)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환경 개선 속도 다소 미흡
 - 3) 중국의 대단위 투자 진출에 따른 상대적인 빈곤감
 - 4) 국제적인 마인드 또는 실력을 갖춘 현지 인재 고용의 어려움
 - 5)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한 도로 인프라 부족 등
-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 한계가 북극 ADT 추진으로 산업 다변화, 지역 다변화, 기후 및 환경 이슈 반영 등이 포함돼 극복될 수 있을지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 러시아 연방 정부는 북극의 전 지역에서 8개의 주요 발전 지역을 나누었는데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이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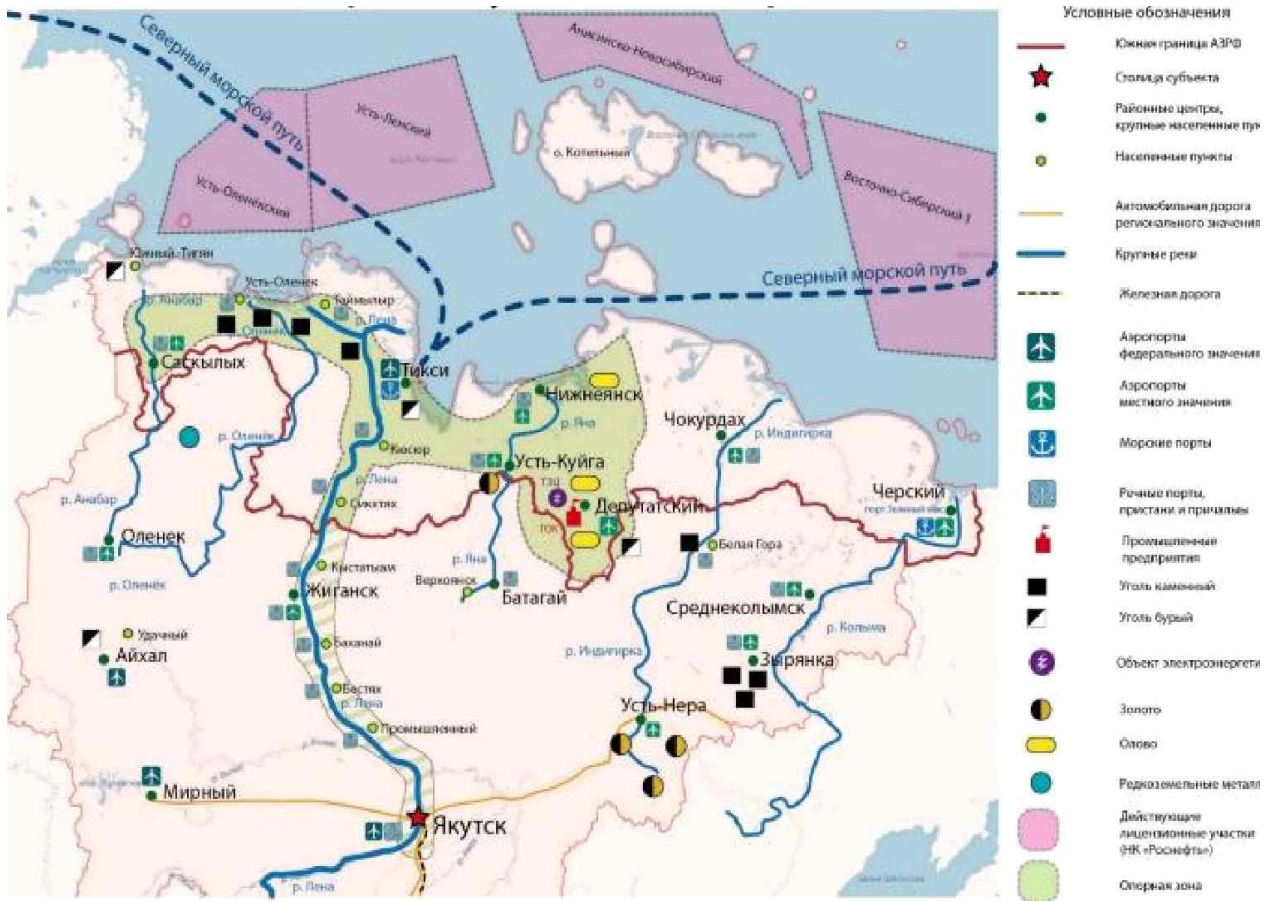


3.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

- 세베로-야쿠츠키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에는 일정한 혜택에 의한 발전은 가져오지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지엽적 의미로서의 지역은 아님
 - ▶ 프로젝트 초기에는 “세베로-야쿠츠키”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몇몇 사업체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북극 개발이라는 초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 북극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접근해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 북극과 북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및 생산을 위한 인프라의 건설과 위도-경도 경

제 조직 기반 하의 지역 개발이 필수적

- 이 지역은 극한 기후로 인해 지역에서의 생활에는 매우 높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됨
 - ▶ <위도 상> 지역은 불편한 북쪽들로 (북극,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냉대 기후, 극한적으로 불편한, 북쪽의 극 지역, 상대적으로 불편한) 이루어지고, <경도 상> 은 북극 지역 동쪽 부분의 공간 구조에서 교통 인프라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레나 강, 밤 철도의 횡단과 큰 북쪽 강들(북쪽으로 흐르는 강들 아나바르, 오레뇨크, 야나, 인디기르카, 콜리마)과 해로가 결합
-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은 <러시아의 북극지역 개발전략 2030 프로젝트>의 주요사업 중 하나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도로 건설(자동차도로, 철도), 항만 개발, 자원개발 등이 포함



▶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의 교통 항로

-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의 개발은 주변의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북동쪽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북서쪽 - 추코트카 자치구, 동쪽 - 마가단 지역)

- 세베로-야쿠츠크 거점지역은 "레나 유역에서 내수운송으로 화물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함대 현대화 및 선박 건조"를 위한 Zhatayskaya 조선소를 포함하며, 이 사업은 러시아 예산 40억 루블을 투자하여 진행할 예정,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9년 첫 번째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간 10척의 내륙 수운을 위한 선박의 건조할 예정
- 해양 항구도시 틱시는 러시아의 북동 항로의 동쪽 지역의 항구이며, 이 항구는 군함 정박 등 군사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안전한 선박의 기항을 보장하기 위해 10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위한 예산으로 약 20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이고 이후 예상되는 화물 순환량은 연간 30만톤 임
 - ▶ 틱시는 북극 해양로 동쪽 부분의 주요 목적 지점으로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고 그 밖의 핵 기관을 갖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러시아의 해양 항만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러시아 연방의 군 해양 함대의 선박과 배들이 기반으로 하는 항구임
 - ▶ 항구의 수심은 10m 이상의 깊이로 선박의 안전을 보완하는 등의 항구 설비를 재구축 하는데 약 20억루블의 연방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후 화물 처리량은 매년 30만톤으로 예상
- 틱시 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에 의해 북극에 견고한 발전과 기후 변화의 관측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위치임
 - ▶ 매년 틱시 지역에서만 15곳 이상의 러시아 및 국제적 단체의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정부와 사하 공화국 학술원은 야쿠티야 학술 센터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CO PAH)과 함께 틱시 지역에 러시아 북극 동쪽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한 종합적 학습을 위한 연방 북극 학술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도 함
 - ▶ 지리적 위치로 인해 틱시 지역은 기후 변화와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
 - ▶ 베르카킷-토포트-야쿠츠크 철도의 시운전, 야쿠츠크시 근처의 레나강 다리 건설 및 틱시 항구의 부흥은 야쿠츠크의 대규모 현대 복합 운송 허브 형성에 기여
 - ▶ 북극해 항로, 내륙 수로, 항로, 철도 및 도로, 항공로와 통합되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운송 통로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어 아시아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감축할 수 있음(태평양 지역에서 대륙의 유럽 부분까지)
 - ▶ 중국 - 야쿠츠크 - 틱시 - 세브모르 철로는 유럽의 새로운 교통 회랑의 극동 연방 지구 생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발
 - ▶ 예비 계산에 따르면 2030년 북 야쿠츠크 지원 구역의 화물 운송량은 995.6천 톤에 이를 것입니다(2016년까지 3배 증가). 가장 집중적인 성장은 2021-2025년에 상호 관련된 프로젝트의 복잡한 구현으로 인해 예상

<표 1> “세베로-야쿠츠키” 주요지역 화물 수송량 및 순환량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반출	0.20	0.30	0.30	1.40	7.50	156.30	290.60
화물 순환, 백만 톤-km	0.85	1.28	1.28	6.07	32.80	212.38	386.86
주석 채굴에 따른 생산, 천 톤	0.00	0.00	0.00	0.90	7.00	7.00	7.00
성장, %					800.00	100.00	100.00
톰토르, 쟌트랄나야, 니쥐나야 매장전 채굴, 천 톤	0.00	0.00	0.00	0.00	0.00	144.30	278.60
성장, %	-	-	-	-	-	-	193.10
우스츠탄스키 지역 매장전 금채굴, 천 톤	0.20	0.30	0.30	0.50	0.50	5.00	5.00
성장, %	-	156.30	120.00	166.70	100.00	1000.00	100.00
반입	322.10	329.00	344.20	343.50	406.60	682.90	705.00
화물 순환, 백만 톤-km	938.19	965.45	981.30	1016.49	1278.55	1666.03	1728.12
주석 채굴 및 생산 필요에 의한	0.00	3.20	3.60	4.80	10.30	122.90	155.80
성장, %	-	-	111.30	133.20	216.80	1093.40	102.50
톰토르, 쟌트랄나야 니쥐나야 매장전 채굴 필요에 의한	0.00	0.00	0.00	0.00	0.70	12.00	16.00
성장, %	-	-	-	-	-	1714.30	133.30
우스츠탄스키 지역에서 금 채굴에 필요에 의한	2.60	3.30	5.10	10.20	63.90	211.80	211.80
성장, %	-	128.30	155.00	199.10	625.00	331.30	100.00
다이아몬드 사광 채굴에 따르는	51.40	51.70	52.00	52.30	52.60	52.90	53.20
성장, %	-	100.60	100.60	100.60	100.60	100.60	100.60
북쪽 반입	268.10	270.80	273.50	276.20	279.00	293.20	308.20
성장, %	-	101.00	101.00	101.00	101.00	105.10	105.10
총 화물량, 천 톤	322.20	329.30	334.50	344.90	414.10	839.20	995.60
성장, %	-	102.20	101.60	103.10	120.10	202.70	118.60
화물 순환, 백만 톤-km	939.04	964.73	982.58	1022.56	1311.36	1878.41	2114.98
성장, %	-	102.74	101.85	104.07	128.24	143.24	112.59

-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에 필요한 재정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재정비용의 총액은 약 16억 미국 달러에 달함
 - ▶ 내륙 및 해양 함대의 교체비용 3억~4억 달러
 - ▶ 톱시항구 주변의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작업 50-70억 루블 (\$약 1억 달러)
 - ▶ 야쿠츠크시와 니즈니베스타흐 정착지에 현대적인 물류 센터 건설 100-150 억 루블 (2 억 1,300만 달러)
 - ▶ 톱시 항의 현대화 500-600 억 루블 (8 억 5200 만 달러)

-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니즈니베스타흐 정착지의 컨테이너 환적 터미널에 항구 경제 특구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의 개발은 다이아몬드, 금, 비철 및 희토류 금속 매장지와 같은 고체 광물뿐만 아니라 근해의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의미
 - ▶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우스치-야나”의 핵심 지역인 우스치-얀스키 구의 큐추스 금 매장지를 적극 이용할 예정
 - ▶ 쿨라르 광석 광상 지역의 희토류 금속 광상과 다수의 광석 및 사금 광상 주석을 포함하고 있고, 큐추스 매장지 개발은 우스치-얀스키 뿐만 아니라 베르호얀스크 지역의 다른 매장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를 만들 것
 - ▶ 연간 금 생산량이 5-6톤인 큐추스 금 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와 티레크티야크, 데푸타츠코예, 츠르푸나 매장지에서 주석, 텅스텐, 인듐 및 관련 구성 요소 추출에 대한 프로젝트가 관심을 받고 있음
 - 1천만 톤 이상의 석유와 160억 입방미터의 가스 매장량이 있는 서 아나바르스키 지역 개발
 - 허가된 지역 아나신스코-노보시비르스키, 우스치-올렌스키, 우스치-렌스키에서의 석유 생산
 - 1억 5천만 톤 이상의 광석 자원을 가진 톰토르 희토류 금속 매장지의 개발
 - 사하공화국(야쿠치아), 마가단 지역, 추코트카 자치구의 소비자에게 석탄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나데즈딘스키 부지개발. 설계능력은 연간 20만톤

- 야쿠치아 지역에서는 매년 60톤 이상의 매머드 뼈가 발굴되고 있고 이것들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고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법의 개정을 통해 유출되는 자원을 막아야 함

- 세베로-야쿠츠키 거점지역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포함

- ▶ 북쪽 야쿠치아 지역의 광업 발전을 발생시키고 이 분야에서 최소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계된 산업에서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
 - ▶ 지역 개발로 주석, 희토류 그리고 비철금속의 수출 잠재력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
 - ▶ 지역 개발로 유입되는 인구와 수입증가는 지역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북극관광에 자극
 - ▶ 북극의 새로운 개발 과제는 과학 및 산업이 과학 및 기술 발전을 가속화 하도록 동기를 부여
- 개발 진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주민의 전통 경제활동의 보호, 원주민의 삶의 터전과 전통 생활방식을 등을 보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국가 정책 및 북극 개발의 포괄적인 방향성 범주에 따라서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 개발 대한 법" 결정을 허가했음
- 2017년 국제 포럼 "북극 - 대화의 영토"는 북극 개발 국가 위원회의 후원 하에 아르한겔스크에서 3월에 개최, 이 포럼에는 전통적으로 북극의 정상, 주요 과학자, 전문가 및 대기업 대표를 비롯한 국가 원수들이 참석
- ▶ 포럼이 북극 영토의 질적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통일된 정책과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이후 실질적인 관리 결정의 기초 역할

【참고자료】

- Борисов, Е.А. Состав территорий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как основа систем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 Е.А. Борисов // Экономика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 2015. - № 1(03) - с. 7-13.
- Лаженцев, В.Н.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е развитие (примеры Севера и Арктики) / В.Н. Лаженцев // Известия Коми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УрО РАН. - 2010. - Выпуск 1. - с. 97-104.
- Концепция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проект).
- Концепц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еверо-Якутской опорной зон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Якутск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 (Я), 2016. с. 54.
- ФЗ«О развит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ект).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26.12.2016 г. № 455 «О проекте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с определением целевого видения до 2050 года».
- 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провёл засед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Арктики //
- <http://government.ru/news/25686/>.
-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Анабарский, Оленекский, Булунский, Жиганский, Аллаиховский, Абыйский, Момский, Усть-Янский, Верхоянский, Эвено-Бытантайский, Нижнеколымский, Среднеколымский, Верхнеколымский

러시아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정체성 연구 : 문화 일반성, 다양성, 상대성 및 특수성을 중심으로¹⁾

계용택

(러시아리서치)

I. 서론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시베리아-북극권의 문화적 중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 지역은 교통로는 물론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과 농림자원, 한류성 수산자원의 보고지역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문학 연구의 보고 지역으로 21세기 한반도의 잠재적인 미래 성장공간이다. 또한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지가 아태로 이동되면서 시베리아-북극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및 협력, 현재와 미래의 인류 생존을 위한 공동개발,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시베리아-북극권 개발·보존에 관련된 제반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시베리아-북극권의 개발은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고유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시베리아-북극권에서 거주하는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 및 생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베리아-북극권 개발로 소수민족들이 생활하고 있던 삶의 터전과 민족 공동체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관심 부각은 넓게는 인류생존과 직결되는 문화의 다양성 측면, 좁게는 해당 소수민족의 정체성 존중 및 보존의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개발과정에 따라 생활공간을 위협받고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북극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문화변동 양상과 구조를 추적하고 민족정체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특별히 문화변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문화적 현상이 경제적 사회적 현상보다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빠른 방법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현실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시베리아-북극권이라는 공간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시베리아-북극권이라는 공통의 지리적 환경 하에서 배태된 소수민족들의 문화 속에 자리

1) 본 글은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잡고 있는 공통의 가치 체계와 문화변동 현상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과정, 내용 및 결과물 도출은 인류문화의 보편성, 다양성, 상대성 및 특수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체계로, '지적, 정신적, 심미적 발달 과정' 및 '지적 활동 및 예술 활동의 결과물과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이란 어떤 그룹에 소속된 정체성이나 감정인 동시에 사람의 자아 개념과 자기 인식의 부분이며 민족성, 민속, 종교, 사회계급, 세대, 지역 그리고 특징적인 문화를 갖는 사회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의 특성이며 문화적 동질 그룹 구성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이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 경험과 공동의 역사 인식을 가지며,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며 다양한 민족들 속에서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은 친족관계, 고유의 삶의 터전, 종교적인 제의의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복장, 음식, 가옥구조와 주거양식, 언어, 역사,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례, 절기, 풍속, 특정 금기, 특수한 의료기술과 행동들이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으로 구별되어 스스로 표현하거나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민족정체성을 전승하는 행위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한 지역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존재할 때에는 역외 중심부 및 역내 주변부의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소수민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면 지속적으로 같은 혈통이나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다는 운명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문화적인 공통점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적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은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민족정체성은 문화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가 지역, 국가에 따라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계속 변하는 것처럼 민족문화도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양식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개입되거나 학습, 혹은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하며 변해간다. 그리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며 지역성이나 민족성, 국민성으로까지 발전한다. 한편 그 과정에서 문화들 간의 접촉은 새로운 관념들을 등장시키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소중한 전통과 정체성의 기반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사회 간의 관계성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우월주의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민족들 간의 문화접촉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파되며 발생하는 문화변동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의 고유문화가 외래문화와 접촉한 결과,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문화융합과,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기존의 문화가 외래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해체되거나 소멸되어 버리는 문화동화 및 문화소멸 현상이 발생한다. 그밖에 외래문화가 유입되지만 기존의 문화와 뒤섞이거나 흡수되지 않고, 하위문화로서 독립성을 유지

하면서 존재하는 문화공존 및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 고유문화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 외래문화를 거부하고 고유문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문화반등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베리아-북극권의 소수민족들 문화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소수민족들의 문화 속에 자리한 여러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들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의 연결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파악하고자한 이유는 문화 속에 반영된 세계관이 민족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보편성, 다양성, 상대성, 특수성 및 동질성을 고찰하고 소수민족들의 여러 문화 형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통의 가치 체계를 규명해 내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들이 지닌 다양한 문화들의 여러 예들을 분석하여 그 개략적인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내포하고 진행되는 연구과정에서 활용되는 연구 대상으로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양상들로 종교(샤머니즘)문화, 설화(신화)문화, 축일(축제)문화, 음식문화, 주거(건축물)문화, 수송문화, 음악문화, 사냥문화, 장난감문화, 놀이문화, 결혼문화, 장례문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식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우선 시베리아-북극권 민족들의 문화형성 및 발전 과정, 민족정신 등 개괄적인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될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적 양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II.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생활-예술 문화

1. 축치족 생활-예술 문화

축치족의 언어는 추코트-캄차트카 어족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사하공화국, 추코트-카랴크 자치구에 거주한다. 축치족은 19-20세기 러시아 관청 행정문서에 등장했으며, 축치족 이름은 <툰드라 지역 축치족>의 <순록이 풍부한>에서 유래되었다. <연안 축치족>은 스스로를 <해양 종족> 또는 <연안 거주자>라고 부른다. 또한 <연안 축치족>은 다른 종족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들을 <진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20년대 말에는 축치족의 옛 명칭인 <루오라베트라니>가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추코트 언어들에는 문어체를 근간으로 하는 동부지방어 또는 우엘린어와 페베크스키이, 엔미렌스키이 방언을 주로 사용하는 서부지역어로 나누어진다. 1931년부터 라틴어를 문자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36년부터 러시아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대 축치족은 야생순록 및 물고기 잡

이를 하는 내륙의 사냥꾼 문화를 가졌으며 주로 내륙에 살고 극히 일부는 시베리아 북동부에 거주하였다²⁾. 에키티키뱀강 및 엔미뱀강과 엘기트호수에서 기원전 2천년경의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기원전 1천년까지 축치족은 길들여진 순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해안가에서 정주생활을 시작했다. 또한 축치족은 에스키모인들과 이웃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

14-16세기에 유카기르 종족이 칼리마강 및 아나디르야강 계곡으로 침투해 들어와 야생순록 사냥터를 점령한 이후로 축치족의 정주생활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태평양 및 북빙양 연안 에스키모인들은 <사냥꾼-축치족>을 다른 연안지역으로 내몰았으며 축치족 일부는 에스키모인들에게 동화되었다. 유카기르 종족의 아나디르야강 계곡 침투로 인해 축치족은 혈통관계가 있는 코랴크족으로부터 거주지역이 분리되었다. 축치족은 유목과 사냥을 주로 하는 <순록 축치족>, 길들여진 순록을 소유하고 야생순록 및 해양 동물을 사냥하는 <정주 축치족>, 해양 동물과 야생순록을 사냥하지만 길들여진 순록을 소유하지 않은 정주 사냥꾼인 <도보 축치족>으로 구분되어 진다. 19세기까지 축치족 그룹들 간의 기본적인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툰드라지역 순록 축치족>은 인디기르-알라제이, 서부콜리마 지역에, <연안 축치족>은 태평양, 베링해, 북빙양 연안에 거주하였다. 축치족에게는 오래전부터 2가지 형태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는 순록사육이며 다른 하나는 해양 동물 사냥이다. 물고기 잡이, 사냥, 자연물 채집등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의 획득형태이다. 대규모 목축에 의한 순록사육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 걸쳐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목축 순록 떼의 규모는 3000에서 12000두 정도였다. 툰드라 그룹 축치족의 순록사육은 기본적으로 육류 및 운송수단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여름동안에 대양 연안 및 산악지역에서 목축용 개없이 순록 방목을 하였으며, 가을이 오면 삼림지역 경계선 부근 내륙 깊숙히 자리한 겨울목장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에 따라 순록 사육지가 5-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절대다수의 축치족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의지하는 생산형태를 유지하였다. 19세기 말까지 순록사육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정주 축치족과 아시아 에스키모인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인 및 외국인들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점차 자연에 의존하는 순록사육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추코트 지역 순록사육에서 자산가들 중심으로 계급의 분화가 나타났다. 가난한 순록사육자들은 고용인이 되었으며, 부유한 순록사육자들은 사육두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정주 축치족과 에스키모인들의 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안(정주) 축치족은 전통적으로 해양 동물 사냥에 종사하였는데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물개,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고래에 대한 사냥으로 주요 식품들을 조달하였다. 그밖에도 사냥한 해양 동물로 부터 카누, 사냥무기, 옷, 신발,

2) <https://www.yakutskhistory.net/%D1%8F%D0%BA%D1%83%D1%82%D1%8B/%D1%87%D1%83%D0%BA%D1%87%D0%B8/>

생활용품 제작을 위한 견고한 재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거주지의 조명과 난방을 위해 해양 동물의 기름을 사용하였다. 바다코끼리 및 고래사냥은 원칙적으로 여름-가을 시즌에 행해지고, 물개사냥은 겨울-봄 시즌에 진행되었다.

사냥무기에는 크기와 사용대상에 따라 작살, 창, 칼등이 있었다. 고래 및 바다코끼리는 가죽배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사냥을 하였으며 물개사냥은 개별적으로 행하여졌다. 19세기말부터 외부시장에서 해양 동물 가죽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20세기 초에 고래 및 바다코끼리 등의 해양 동물의 소멸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추코트 정주주민들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순록(연안)축치족은 고래 및 순록의 힘줄 또는 가죽 띠로 만든 그물이나 채집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여름에는 해안에서 카누를 타고 물고기 잡이를 하고 겨울에는 얼음구멍에서 물고기 낚시를 하였다. 19세기 초까지 산양, 노루, 백색 곰, 갈색 곰, 오소리, 늑대, 여우들을 화살이나 창, 덫(함정)을 이용하여 포획하였다. 물에 사는 들새는 창이나 나무토막 등 던지는 물체를 이용하여 사냥하고, 솜털오리는 막대기로, 토끼나 뇌조는 울가미-함정을 이용하여 포획하였다.

18세기에 돌도끼, 창 꼭지, 화살촉을 비롯하여 뼈로 만든 칼등이 거의 모두 철기로 교체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화승총, 울가미, 덫 및 철을 이용한 포획기구 등을 얻거나 구입하였다. 20세기 초까지 해양 동물 사냥을 위해 화약을 이용한 고래용 작살 등의 무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여자와 아이들은 딸기, 식물 뿌리, 쥐구멍속의 씨앗 등 식용식물을 채집하여 저장하였다. 식물뿌리를 캐기 위해 사슴뿔로 만든 뾰족한 꼭지가 달린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이들 꼭지들은 철기로 교체되었다. 유목 및 정주 축치족은 가내수공업을 발전시켰다. 축치족 여성들은 모피를 만들고, 옷 및 신발을 만들었다. 또한 분홍바늘꽃 또는 야생호밀로 만든 실을 이용하여 가방을 짠으며 그밖에 모피나 물개가죽으로 모자이크를 만들어 아랫부분에 사슴 털로 구슬을 매달았다. 남자들은 바다코끼리 어금니 또는 동물의 뼈를 예술적으로 조각하였다. 19세기에 뼈세공 연맹이 조직되어 자신들이 만든 제조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축치족의 기본적인 이동수당으로 순록이 끄는 썰매가 있다. 그밖에 화물, 도자기류, 이동식 천막 등을 옮기는데 필요한 운반용 썰매가 있다. 축치족은 눈 및 얼음에서는 스키를 타고, 바다에서는 1인승 및 다인승 카누를 이용했다. 이 보트는 짧은 단일블레이드가 있는 노를 사용하였다. 순록 축치족은 필요한 경우, 사냥꾼들이 사냥을 위해 뗏목 또는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수송에 이용되는 순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축치족은 개가 끄는 썰매를 이용할 때 개들을 부채꼴로 묶는 방법을 에스키모인에게서 배우고, 개들을 무리로 묶는 방법은 러시아인에게서 배웠다.

개들을 부채꼴로 썰매에 묶는 방법에는 약 5-6마리의 개들이 이용되고, 개들을 무리로 묶어 썰매를 끌 때에는 약 8-12마리의 개들을 한꺼번에 묶었다. 유목 축치족의 유목캠프는 서쪽에 동쪽 방향으로 10채의 이동식 원추형가옥들로 구성된다. 제일 서쪽에는 유목캠프 우두머리의 원추형가옥이 세워진다. 축치족의 원추형 이동식 가옥은 중심높이는 3.5-4.7미터이고 지름은 5.7-8미터로, 카랴크족의 이동식 가옥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원추형가옥은 세워진 나무기둥에 보통 2개의 천으로 가공된 순록가죽으로 덮어씌운다. 가죽의 끝부분은 다른 가죽과 겹쳐서 이어지게 수를 놓은 가죽 띠로 동여매어 진다. 가죽 끈의 아랫부분에는 덮어씌운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썰매 또는 무거운 돌이 달려있다. 겨울에는 새로운 가죽을 추가로 덮어씌우며 여름에는 전년에 쓰던 가죽을 이용한다. 원추형 가옥 중심의 연기구멍 아래에는 화로가 놓여진다. 출입구 맞은편 벽 쪽에는 마름모 형태의 가죽으로 만든 잠자는 공간이 설치된다. 원추형 가옥의 덮개는 가죽에 달린 여러 고리들을 연결하는 나무기둥에 의해 형태가 유지된다. 축치족의 이동식 원추형 가옥에서 지붕 덮개의 평균 높이는 1.5미터, 폭은 2.5미터, 길이는 4미터이다. 바닥은 돛자리가 깔리며 그 위로는 두꺼운 가죽을 덮었다. 침대의 머리맡에는 가죽조각이 가득한 2개의 장방형 자루가 놓여진다.

이동이 빈번한 겨울에는 안에 모피가 있는 가장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지붕덮개가 사용된다. 또한 수개의 순록가죽으로 만든 담요를 덮기도 한다. 이동 원추형가옥 덮개 제작을 위해서는 순록가죽 큰 것 12-15장, 침구제작을 위해서는 순록가죽 큰 것 10장이 필요하다. 축치족 가죽들은 하나의 가죽으로 만든 침대 덮개를 가진다. 가끔은 한 채의 원추형 가옥 안에 2개의 침대 덮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아침마다 여성들은 침대 덮개를 걷어서 야외 눈 위에 펼쳐 사슴뿔로 만든 방망이를 사용하여 두들긴다. 침대 덮개 안쪽부터 빛을 쬐인 후 기름을 사용하는 등불로 데운다. 원추형가옥 벽에는 물건들이 보관되고, 화로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생산품들이 놓여진다. 원추형가옥의 출입구와 화로사이에 빈 추운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이 놓이게 된다. 연안 축치족은 실내조명을 위해 고래 및 바다코끼리 기름-등불을 사용한다. 툰드라 축치족은 분쇄된 순록 뼈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동시에 석재로 만든 기름-등불을 사용하여 냄새와 그을음이 없게 실내를 밝힌다. 18-19세기 연안 축치족에는 원추형가옥 및 반지하가옥 등과 같이 2가지의 거주형태가 생겨났다. 이동식 원추형가옥은 기본적으로 순록 축치족의 거주형태로 골격 기둥이 나무나 고래뼈로 만들어 졌다. 견고한 골격은 폭풍을 대비한 안전한 가옥설치에 도움을 준다.

원추형가옥은 바다코끼리 가죽으로 덮어 씌워진다. 가옥덮개는 코끼리 가죽 큰 것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9-10미터, 폭은 3미터, 높이는 1.8미터이다. 환기를 위하여 벽에 구멍을 냈으며, 평소에는 모피로 만든 마개로 폐쇄되어 있다. 가옥 덮개 양쪽에 매달린 물개가죽으로 만든 큰 자루에는 겨울옷 및 가죽재고가 보관되었다. 가옥 안쪽에는 벽을 따라 가죽 띠가 걸려있는데 여기에 옷 및 신발들을 건조시킨다. 19세기말에 연안 축치족은 여름동안에 방수천이나 다른 내구성 있는 물건들을 가옥 지붕에 덮어씌운다. 절반이 땅속에 묻힌 반지하가옥에서는 기본적으로 겨울동안만 생활한다. 이 가옥의 형태 및 구조는 에스키모인들의 가옥을 모방했다. 이형태의 가옥의 건물골격은 고래의 턱뼈 및 갈비뼈로 이루어졌으며 지붕은 잔디로 덮여져 있다. 유목 및 정주 축치족의 살림 용품은 매우 단순하며 단지 식사에 필요한 도구들만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만든 수프를 담기 위한 접시를

비롯하여 삶아진 고기, 설탕, 과자 등을 담기 위한 높이가 낮은 큰 나무접시 등이 있다.

또한 축치족은 다리가 짧은 테이블에 둘러앉거나 직접 음식물 주변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도 한다. 식사 후에 얇은 나무 부스러기로 만든 수건으로 접시에서 음식찌꺼기를 청소한다. 그릇들은 상자 안에 보관한다. 석재 판을 이용하여 돌망치로 순록 뼈, 바다코끼리 고기, 물고기, 고래지방 등을 분쇄하기도 한다. 살가죽은 돌로 만든 긁어내는 도구를 사용하여 벗겨낸다. 식용 식물뿌리는 뼈로 만든 삽 및 팽이로 캐어낸다. 각각의 가족들에는 필수적으로 불을 얻는 도구들이 있다. 불을 얻는 도구는 오목한 곳이 있는 사람형태의 거친 석판형태로 여기에 활모양의 송곳을 돌려 불을 얻는다. 도구를 사용하여 불을 얻는 행위를 신성시 하였으며, 불을 얻는 도구는 부계를 따라 자손에게 전달된다. 부식들은 활모양의 송곳으로 가족이 소유하는 신성시 되는 물건이다. 툰드라 및 연안 축치족은 에스키모인과 동일한 형태의 옷과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겨울옷은 안과 바깥에 모피가 있는 2겹으로 된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다. 연안 축치족은 바지 및 봄-여름용 신발을 만들기 위해 단단하고 탄력성 있는 물개 방수 가죽을 사용한다.

또한 바다코끼리 창자로부터 레인코트 및 방수 옷을 만든다. 순록 축치족은 연기만 나가는 오래된 원추형가옥에서 습기의 영향으로 변형되지 않는 바지나 신발을 만들었다.

항시적인 생산품 교역으로 툰드라 축치족은 바다포유류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 가죽신발창, 벨트, 올가미용 밧줄 등을 손에 넣었다. 또한 연안(순록) 축치족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 짐승 가죽을 준비하여 둔다. 추코트의 주민들은 의복을 일상생활용과 축제의식용으로 나누어 입는다. 또한 아이, 청소년, 남성, 여성, 노인, 장례의식용 등으로 의복이 구분되어 있다. 추코트의 전통적인 남성복 한 세트는 가죽상의, 칼집 및 담배쌈지가 있는 허리띠, 가죽옷 위에 입는 사라사로 만든 방수 옷, 바다코끼리 창자로 만든 비옷, 바지 및 다양한 모자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추코트의 겨울모자로는 귀마개가 탈린 털모자를 사용한다. 기본적인 여성복은 넓은 소매가 있는 털 콤비와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신발 형태로는 순록가죽으로 만든 무릎까지 오는 가죽신발이 있다. 가죽신발 다리부분에는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원통형 부분이 연결되고 모피가 있는 방수용 가죽으로 신발 깔창을 만든다. 툰드라 지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식품에는 순록고기가 있고, 연안지역 사람들에게는 해양 동물들의 고기 및 기름이 있다. 순록고기는 작게 잘려진 얼린 형태 또는 약하게 끓인 형태로 먹는다. 순록을 집단적으로 도살할 때 순록의 위에 있는 내용물을 피와 기름과 함께 끓여 먹는다. 그밖에 차갑게 하거나 동결된 순록피를 먹기도 한다. 야채 및 곡물로는 수프를 만든다. 연안 축치족은 특히 바다코끼리 고기를 좋아한다. 전통적인 저장방법으로 이들은 음식들을 보관한다.

연안 축치족은 바다코끼리의 척추 및 옆면을 비계 및 가죽과 함께 사각형 형태로 잘라낸다. 또한 간을 포함한 다른 깨끗한 내장들도 도려낸다. 이들은 잘라낸 고기의 가죽을 벗겨내어 뼈를 빼낸 덩어리 형태의 고기를 만든다. 순록 축치족은 신선하고 조금 신맛의 얼린 형태의 고기를 먹는다. 바다코끼리 고기 날것은 끓여서 먹는다. 돌고래 및 쇠고래

고기의 비계가 붙은 가죽을 치즈로 만들어 먹거나 끓여서 먹는다. 츠코트의 북부나 남부 지역에서는 연어, 대구, 가자미, 돛새치 등이 지역 주민의 주요 식품이다. 큰 연어는 말려서 저장한다. 상당수의 순록 축치족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한다. 또한 물고기 알도 소금에 절여 먹는다. 바다동물의 고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식물성 첨가물을 혼합한다. 순록 및 연안 축치족은 전통적으로 야생풀, 뿌리, 나무열매, 미역 등을 주로 섭취한다. 이들은 난쟁이버들, 팽이밥, 식용뿌리 등을 고기와 피를 섞어 동결시켜 발효시킨다. 바다코끼리의 고기 및 기름을 섞어 빵은 뿌리로 작고 둥근 빵을 만든다. 외부에서 반입한 밀가루로 죽을 끓이거나 물개기름에 얇게 만든 밀가루 빵을 튀긴다.

17-18세기에 축치족의 사회-경제적 기본단위는 가부장적인 가족공동체로, 단일 생산체제와 공동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몇몇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가족 공동체는 10여명의 친족관계가 있는 성인 남자들이 있다. 연안 축치족의 생산 및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의 회원수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가족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공동체의 우두머리로는 가족배의 책임자가 된다. 툰드라 축치족 공동체는 순록목축을 둘러싸고 형성되는데 우두머리로는 <힘센 장사>가 된다. 18세기 말까지 순록목축에서 순록의 증가로, 보다 편리한 목축을 위해 목축공동체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공동체 내부의 관계약화를 가지고 왔다. 순록 축치족은 촌락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전체 구역에서 몇몇 씨족 공동체가 정주하였으며, 이들은 독립적인 반지하가옥에서 살았다. 유목 축치족은 몇몇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유목민 캠프에 거주하였다. 각각의 공동체는 2-4가족으로 구성되면 독립적인 원추형가옥에서 살았다. 15-20개의 유목민 캠프는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순록 축치족에는 피의 복수 전통이 내려오는 부계 친족그룹이 형성되고 제사의식 및 제사용 불씨가 후손으로 전달된다. 초기 노예제도가 있는 족장시대는 이웃종족과의 전쟁이 중단된 이후 사라졌다. 19세기에 사유재산 및 재산불평등 현상이 발생된 이후에도 공동생활, 집단결혼, 형제의 과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습관들은 유지되었다.³⁾

19세기 말까지 거대한 족장시대 가족형태는 핵가족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축치족은 종교적 신앙 및 숭배를 바탕으로 애니미즘 및 생산을 위한 숭배사상이 있었다. 축치족의 생각하는 세계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생존하는 땅(육지)이다. 두 번째는 하늘로, 여기에는 조상 및 가치 있게 죽은 자들이 거주한다. 세 번째는 지하세계로, 악을 운반하는 사람 및 병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축치족의 신앙에 따르면, 사냥장소, 거주지에는 공물을 바쳐야 하는 신비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축치족의 집수호자는 특별한 범주의 은혜로운 생명체로 각자의 거주지에는 제사의례용 피규어 및 신성시 되는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다. 툰드라 축치족에게는 순록사육, 연안 축치족에게는 바다와 관계있는 종교적 숭배시스템이 발생되었다. 숭배대상으로 자연, 우주, 새벽, 북극성, 별자리, 조상 등이 있었다. 숭배대상에 대한 공양물 제공은 공동체, 가족, 개인 각각

3) <https://cyrillitsa.ru/narody/49914-zachem-chukchi-obmenivayutsya-zhenshhinami.html>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렵활동 및 순록사유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만성적인 불운에 대한 처방은 샤만이 해야 할 일이었다.

추코트 축치족은 전문적인 계급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가족 및 공동체의 생산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과 다르게 샤만은 영혼-수호자와 교류를 하는데, 트랜스(실신)상태에서 조상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샤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의술 분야이다. 샤만은 제례의례에서 특수한 의복차림을 하지 않지만, 텀버린은 샤만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샤만의 자격은 무속가족에서 가부장만이 할 수 있다. 축치족의 주요 명절들은 생산 활동의 주기와 관련되어 있다. 연안 축치족은 에스키모의 명절들과 유사한데 봄에는 가족배의 최초의 출항 축제, 여름에는 물개사냥 종료에 즈음한 짐승머리 축제, 가을에는 해양 동물들의 주인들에 대한 축제가 있다. 모든 축제에는 달리기 시합, 싸움, 활(창)쏘기, 바다코끼리 가족으로 만든 뿔 판에서 도약경기, 순록 및 개썰매 경기, 춤, 텀버린 연주, 무언극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아기분만, 초보사냥꾼의 첫 성공을 감사하는 기념축제도 벌어진다. 축제행사에는 절대적으로 제사공양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순록, 고기, 순록뿔 형태의 작은 조형물, 개 등이 있었다. 축치족에게는 기독교의 전파가 거의 없었다. 축치족의 구비문학에는 신화, 옛이야기, 역사 설화, 삶의 이야기 등이 있다. 신화 및 옛 이야기에는 주인공으로 까마귀가 문화적 영웅으로 등장한다.

신화속의 영웅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곡식 및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처럼 불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사냥방법, 수공업을 가르쳐주고 다양한 관습 및 제사의식을 시행하였다. 축치족 신화속의 영웅은 세계 창조자이며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축치족의 신화에는 사람과 짐승의 결혼을 비롯하여, 고래, 북극곰,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역사 설화에는 축치족과 에스키모인, 코랴크족, 러시아인과의 전쟁이야기도 담겨있다. 축치족의 신화와 삶의 이야기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축치족의 음악은 발생학적으로 코랴크족, 에스키모인, 유카기르족 음악과 연관성이 깊다. 축치족 구성원 모두 유년기, 성년기, 노년기에 만들어진 최소한 3개의 개별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 흔히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멜로디를 선물 받기도 한다. 병에서 완쾌, 친구와의 이별, 사랑에 빠지는 일등 삶에서의 주요 이벤트와 관련되어 새로운 멜로디가 탄생되기도 한다. 축치족의 자장가는 학 또는 암 순록이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 샤만들은 자신만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 샤만들은 영혼-수호신을 대신하여 정서적 상태를 반영한 “영혼의 노래”를 부른다. 텀버린은 둥근 테의 손잡이가 달린 것과 후면에 십자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것이 있다. 텀버린은 남성용, 여성용, 어린아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다.

샤만은 두껍고 부드러운 젓가락으로 텀버린을 연주하고 가수들은 축제일동안 고래수염으로 만든 가는 젓가락으로 텀버린을 연주한다. 추코트의 텀버린은 가족의 신성물로 텀버린의 울림은 “근원지의 목소리”를 상징하고 있다. 다른 전통적인 악기로는 대나무나 뼈, 금속으로 만든 울림판이 있는 입으로 연주하는 소형하프가 있다. 이밖에 나무덩어리 전체

를 도려내어 만든 현악기인 비파가 있다. 비파는 기본적으로 노래 멜로디를 연주한다.

2. 돌간족의 생활-예술 문화

돌간족은 알타이어족 터키그룹의 언어를 사용 하며 타이미르 반도 돌간-네네쯔 자치구, 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 거주한다. 서부, 동부, 포피가이-아나바르 지역에 거주하는 돌간족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한다. 돌간족의 문자는 1970년대 말 러시아 문자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돌간족 최초의 서적은 1973년도에 발간되었으며 돌간어 입문서는 1981년에 출판되었다.

돌간족은 비교적 최근인 17-19세기 형성되었는데, 에벤끼족, 사모디이족, 러시아인 농민들과의 혼합 및 융합과정을 거쳐 민족이 생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민족인 에벤족과 느가나산족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였다. 17세기 돌간족이라 불리우는 퉁구스 민족의 일부는 캄차트카, 아호츠크 연안, 알단강 유역에 살았다. 돌간족은 17-18세기 이주한 야쿠트족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야쿠트족과 함께 전체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⁴⁾

18세기 전체기간에 걸쳐 돌간족은 노릴스크 호수 및 보가니다강 유역으로 이주하였다. 레나강 유역에는 현지 야쿠트족과 일부 소수민족들이 정착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타이미르에서 다양한 민족그룹간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졌다. 야쿠트어는 퉁구스 민족그룹 및 툰드라지역 건너편의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이들 민족간의 결혼은 인종간 특성 차이를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다. 복잡한 민족계통도는 그들의 산업 및 문화에 반영되었다. 이들 민족의 전통산업은 순록사육 및 사냥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잡았다. 돌간족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였으며 삼림지대와 툰드라지대 밖으로는 이동하지 않았다. 겨울에 노릴스크 및 포피가이 돌간족은 서로 떨어져 살았다. 그 밖의 다른 종족 그룹들은 5-6가지 생산 활동을 공동으로 작업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오두막집을 지어 정착하였다. 봄이 오면 농장을 가진 몇몇 가족들이 모여 유목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 순록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보호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가을이 오면 가족들이 모여 구성된 유목그룹은 해체되고 각각의 가족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북극여우 포획을 위한 동물주둥이-올가미를 만들거나 야생순록을 사냥한다. 돌간족은 퉁구스민족의 순록타기 및 순록썰매 이용 전통을 자신들에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 순록사육을 시작했다. 여름엔 순록은 개인이동수단 및 짐 운반 수단으로 쓰였다. 겨울에는 많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 순록을 한 줄에 몇 마리씩 묶어 썰매를 끌도록 하였다. 순록썰매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네네쯔족 및 느가나산족의 썰매와 비슷하나 일부는 야쿠트족의 썰매형태를 모방했다. 에벤끼족과 같이 돌간족은 순록의 젖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느

4) <https://www.yakutskhistory.net/%D1%8F%D0%BA%D1%83%D1%82%D1%8B/%D0%B4%D0%BE%D0%BB%D0%B3%D0%B0%D0%BD%D1%8B/>

가나산족 및 네네쯔족처럼 목축용 개를 이용하였다. 순록의 안장형태와 순록을 타고 가는 방법들은 모두 퉁구스 민족그룹의 전통을 따랐다. 돌간족은 주로 북극여우 및 거위, 오리, 뇌조 등을 사냥하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짐승이 다니는 길에 숨어 있다가 규모가 큰 활과 화살로 야생순록을 사냥하였다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사냥에 총과 독이든 총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총알의 독은 야생순록의 냄새가 나는 기름으로 만들었다.

돌간족에게는 강을 건너는 야생순록을 물속에서 참으로 찢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포획하는, 가을 집단적인 사냥방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름과 가을에는 사냥개를 이용하여 야생순록의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가을 야생순록 사냥철이 오면 야생순록에 접근하기 위해 길들여진 미끼-순록을 이용하였다. 겨울 순록 사냥에는 4마리의 순록이 끄는 썰매로 장시간 야생순록 떼를 추적하며 사냥하기도 한다.

돌간족 사냥꾼들은 퉁구스 민족그룹의 스키와 비슷한 형태의 폭넓은 스키를 사용하며, 야생순록 떼에 접근하기 위해 방패로 위장한다. 물속에 사는 사냥감들을 포획하기 위해 그물, 올가미, 덫을 사용하며 북극여우모피 획득을 위해 동물주둥이-올가미를 사용한다. 북극여우 사냥은 북극여우모피가 상품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돌간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얼음아래에 있는 물고기 등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말총이나 실로 만든 고정된 그물을 사용하는데 그물을 작대기에 매달아 물에 흐르게 놓아둔다. 그물을 사용한 물고기 잡이에서, 산악 하천에서의 사냥처럼 순록이 힘을 이용하여 그물을 잡아당긴다.

돌간족은 쇠못을 수공업으로 가공하여 꼬치고기, 연어과 물고기, 홍송어 등을 낚을 갈고리를 제작한다. 사냥에 사용되는 보트는 소형이며 주로 러시아인 및 야쿠트족으로 부터 구입한다. 전통적인 유목인들의 집은 퉁구스족 형태의 원추형 이동천막이다. 여름에는 천막위에 거친 양가죽을 씌우며 겨울에는 순록 가죽을 씌운다. 예전에는 야쿠트족 형태의 원뿔형 집 및 바라크를 지었으나 러시아인들이 이주해오면서 썰매위에 만든 움막 및 받침대가 있는 작은집을 건축하여 살기시작 했다. 썰매에 만든 움막은 사각형의 형태로 외부에는 순록 가죽을 씌우고 내부는 사라사 천으로 장식한다. 이동형 움막은 큰 썰매위에 설치되며 5-7마리의 순록에 의해 이동되었다. 이동 움막에는 유리를 끼운 창문과 철제난로, 판자침대, 테이블, 의자 등이 있었다. 이동 움막은 목초지에서의 움직임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진다. 그밖에 높은 기둥이 있는 지붕과 바닥만 있는 창고형태의 건물도 사용되었다.

돌간족의 남성복과 여성복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상의는 구입한 직물을 꿰매어 만든다. 남성은 셔츠와 바지를 입는다. 여성은 상의 위에 구슬이 꿰어진 에이프룬이나 허리띠를 둘러맨다, 남성 및 여성 모두 속옷이 따로 없었다. 돌간족 남성과 여성은 여름에 얇은 천으로 만든 옷자락이 긴 외투를 입고 겨울에는 북극여우 모피 및 토끼털로 만든 외투를 입는다. 또한 에벤끼족의 것과 유사한 에이프룬이 있는 파커를 입기도 한다. 돌간족 의복의 특징으로 옷자락 뒷부분이 길쭉한 점을 들 수 있다. 여성용 모자

는 모자 윗부분이 구슬이나 색상이 있는 줄무늬 천이 장식된 여우 방수가죽으로 덮여있다. 돌간족의 신발은 무릎까지 오는 긴 장화 형태로 순록 방수가죽으로 제작되고 구슬이 장식되어 있다. 축제일의 의복과 신발은 구슬 및 색상 있는 줄무늬 직물로 장식한다. 그 밖에 넓은 가죽 끈과 허리띠에는 순록 힘줄로 만든 실로 자수를 놓았다. 남성들은 순록이나 맘모스 뼈에 조각을 하거나 주석으로 된 칼의 손잡이에 기하학적인 동식물 모양을 장식했다. 돌간족 음식물은 주로 삶거나 태양에 말린 육류와 물고기 등이 있었다. 얼려진 물고기로 포를 떠서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야채의 뿌리, 딸기, 구운 밀가루 빵, 펜케익 등을 양식으로 삼았다.

돌간족의 혈통은 부계를 따라 내려져 온다. 19세기까지 돌간족의 전통적인 집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야생순록, 가금류, 물고기 포획을 위한 집단적인 사냥형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냥으로 획득한 순록 및 물고기는 친족과 이웃사이에 나누었으며 상품적 가치가 있는 모피는 사냥꾼의 소유물이 되었다. 많은 순록떼를 소유한 부자는 자신의 가난한 친족들을 일꾼으로 고용했다. 19세기 후반에 돌간족 사이에서 러시아인 및 야쿠트인 상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개상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돌간족은 에니미즘 세계관을 유지해왔다. 돌간족은 신과 영혼의 세계를 3가지의 카테고리 나누었다. 여기에는 어떤 대상에나 스며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영혼,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인 영혼이 있다. 돌간족 샤만의 의상 및 템버린은 야쿠트족의 그것과 형태가 닮았다. 이웃한 사모디이족처럼 돌간족 샤먼들은 마술적인 기술 소유여부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였다. 딸랑이나 템버린, 의복을 갖추지 않은 노래-치유 샤먼, 지하세계의 영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샤먼, 제전도구를 모두 소유한 샤먼 등이 있었다.⁵⁾

돌간족은 가족 및 사냥꾼의 수호자들을 모신다. 이들 수호자들은 기묘한 형태의 돌이나 순록 뿔의 형태로 되었는데 샤만이 이들 형태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돌간족은 나무 조각품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돌간족은 죽은 자를 땅속에 매장한다. 동부 돌간족은 복잡한 무늬가 장식된 통나무 구조물을 무덤위에 설치한다. 그리고 무덤주변에서 순록을 죽이고 주검의 옷이나 소지품은 무덤주변에 두거나 나무에 매달아 둔다. 서부 돌간족은 무덤위에 통나무 구조물을 쌓지는 않으나 흙으로 된 무덤에 나무를 넘어뜨린다. 돌간족의 구비문학은 야쿠트족, 예벤족, 러시아민족의 우화들과 결합된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우화를 보존하고 있다. 돌간족의 독특한 구비문학은 북부지방의 실제 자연환경과 유목민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수께끼, 노래, 우화, 설화, 옛 이야기 등이 있다. 우화들은 동물, 마법, 생활 등에 관련한 소재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 온다. 설화 및 옛 이야기들은 오래된 선조, 부족 및 가족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수수께끼는 아이 및 어른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속담은 기본적으로 야쿠트인의 것을

5) <http://nashasreda.ru/narody-rossii-dolgany/>

차용하고 있다.

돌간족의 음악은 북부 야쿠트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에벤끼족, 에벤족, 느가나산족, 에네쯔족, 북부시베리아 러시아인 원주민들의 음악과 관련이 깊다. 돌간족의 음악은 전통적인 민족적 환경에서 가족-결혼을 형성하는 청년-소녀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20세기 초부터 손톱으로 튕겨 소리를 내는 금속판으로 된 소형하프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돌간족의 악기들은 산업적 특성 및 전통적인 예술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리를 내는 악기의 일부로 방울을 돌간족은 많이 이용하였다. 그 예로 순록과 방목하는 소의 뿔에 매단 방울, 방목하는 소의 목에 단 방울, 늑대를 위협하기 위해 순록의 목에 매단 방울등이 있다. 또한 축제에 입는 아이들 옷에 달린 방울, 여성 및 사면의 예식용 옷에 달린 방울등도 각각의 의미를 가진다.

돌간족은 타이미르 자치관구와 두딘카에서 도시형촌락을 이루고 조밀하게 모여 살고 있다. 돌간족은 종래와 같이 순록사육을 하고 있으며 순록 및 맘모스 뼈에 대한 조각 공예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순록모피와 구슬을 장식한 옷과 신발을 만들며 민족전통의상 제작도 꾸준히 하고 있다. 돌간족의 언어는 두딘카에 있는 사범학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돌간어로 된 교과서도 발행되어 있다. 타이미르 자치구 거주 돌간족들에서 유명 작가, 시인, 기자, 전문예술인들을 비롯하여 어학, 역사, 지리, 사범분야에서 유명 학자와 전문가들이 배출되었다. 타이미르 국영라디오 회사는 돌간어로의 방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문사들은 돌간족의 언어와 문화의 발전 그리고 전통제도의 부활을 위한 기사들을 발표하고 있다

Ⅲ.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음식문화

시베리아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베리아의 숲과 호수가 주는 자연의 선물로 음식을 만들었다. 이들 주민들의 음식은 다양성은 없었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실용적이었다. 시베리아 사냥꾼 및 어부들은 빨강계 단 돌이나 석탄을 사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잡아온 야생짐승이나 물고기는 훈제, 건조, 염장을 하여 장기간 보관하였다. 딸기 및 버섯으로는 겨울용 저장식품을 만들었다. 물고기와 들새고기에 타이가지역의 향신료가 조합된 시베리아 음식은 유럽의 음식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었다. 시베리아 음식들은 고대 러시아 문화의 영향아래 형성되어 왔다. 내부교역이 발전하면서 17세기부터 러시아인들의 지역음식이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19세기 70년대 급속한 철도발전으로 변방지역에서 중심지로 접근이 가능해졌다. 교통의 발전은 여러 지역 러시아인들의 음식이 급속히 러시아 전체민족의 음식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음식들에는 시베리아 만두, 극동의 송어, 연어 알 등이 있다. 시베리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식료품들은 그들 스스로 생산하였다. 우유, 육류, 야채, 계란, 곡물 등이 이들 음식의 원료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시베리아 주민들의 식품이용은 음식절제 필요성 준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해마다 4회의 음식섭취 절제기간이 있으며 최대 130일간 지속되었다, 특별히 고기 및 유제품 섭취가 허락된 날 및 축일을 제외하곤 모든 수요일 및 금요일 낮에 고기 없는 식사를 하였다. 시베리아 주민들의 식탁에는 빵이 주된 음식으로 인구 1인당 소비량이 세계 제일을 차지하였다. 러시아의 음식역사에서 수프 음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양배추 수프, 잡탕 수프, 절인오이 고기 수프, 전골, 냉국 수프, 크바스 야채 수프 등이 러시아인들의 주요 음식으로 형성되었다. 많은 가축을 기르는 오래된 시베리아 주민들에게는 육류 요리가 주요 음식이 되었다. 보통 육류요리는 삶아서 먹는다. 시베리아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만두가 있는데, 만두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로 만든 다진 고기가 들어 있다. 대부분의 시베리아 원주민들은 순록을 사냥하고 순록 고기를 음식재료로 사용한다. 저녁음식으로는 보통 삶은 양고기 및 돼지새끼 고기, 우유 등을 먹는다. 양이나 소, 돼지의 머리, 다리, 무릎에서 나온 재료로 차가운 젤리수프를 만든다. 겨울에 시베리아 주민들은 쇠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만들었으며, 유럽러시아인 이주민들로부터 소시지 제작경험을 습득한 뒤에는 돼지고기로도 소시지를 만들었다.

또한 저장용 고기들 중에는 넓적다리를 소금에 절여 건조한 것들이 있다. 시베리아 음식들 가운데 독특한 발전을 보인 음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피막으로 둘러싼 <파이>를 들 수 있다. 파이에는 물고기, 육류, 버섯, 응고우유, 야채, 곡물, 쌀기 등으로 속을 채웠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항상 물고기를 섭취하였는데, 물고기는 삶거나 끓이는 등 다양한 요리방법으로 물고기 요리를 만들었다. 이들 음식에는 양파 및 버섯을 넣은 물고기죽, 물고기 스투, 물고기 젤리, 건조한 물고기, 훈제한 물고기 등이 있었다. 서부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얼려서 포를 뜯 물기가 있는 물고기를 먹었다. 시베리아 주민의 음식에서 냉동훈제, 가열훈제, 건조훈제 등 3가지 형태의 훈제 물고기가 널리 이용되어 졌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호박, 순무, 당근, 사탕무,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하였다. 감자재배는 극히 제한되어 감자로는 한정된 음식만 만들 수 있었다. 감자요리에는 감자를 굽거나 감자 팬케이크, 감자 커틀렛 등이 있었다. 파이에는 기름에 삶은 양배추, 당근 등을 넣었다.

겨울에는 소금에 절인 오이를 먹었으며 여름에는 벌꿀을 가미한 오이를 먹었다. 이러한 음식들은 결코 시베리아 주민들의 고유한 음식은 아니었다. 이들 음식은 유럽에서 전래한 음식중의 하나로 이미 19세기에 러시아에서 퍼져있었다. 시베리아 주민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중의 하나로 삼나무 열매나 해바라기 씨, 벌꿀이 있었다. 사탕 등의 당과류는 매우 희귀했으면 가끔 축일기간에 일부 사람들이 구매하였다. 시베리아 주민들이 좋아하고 널리 알려진 음료에는 발효된 <크바스>가 있었다. 차를 끓이기 위해서는 풀이나 톱니꼬리조팝나무 및 까치밥나무 잎사귀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밖에 물가루 풀때기, 우유, 쌀기 등을 끓여 전분가루와 함께 먹기도 하였다. 또한 불두화나무로 젤리를 만들기도 했다.

식사음식 종류는 사냥시즌에 얼마이지 않아 계절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우유를 많이 먹고 겨울에는 육류를 많이 먹었다. 현재 이르쿠츠크에는 러시아의 전통을 보존하는 장소들이 많은데 거기서 실제의 시베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다.¹⁾ 시베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인 시베리아 음식은 대단히 많은 칼로리를 함유한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만두의 발생지로 여기서부터 러시아 전역에 걸쳐 만두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시베리아 만두는 소고기, 양고기, 순록고기를 넣었다. 역사적으로 시베리아에서는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넣은 만두는 존재하였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야생 돼지를 길들이고 양육한 다음 도살하였다. 시베리아 주민들의 주된 육류는 쇠고기였다. 다수의 영양학 전문가들은 시베리아 주민들이 제일 건강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싱거운 물고기 또한 전통적 시베리아 조리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맛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물고기에는 버섯을 비롯하여 육류, 시베리아 딸기 등 다양한 재료로 뱃속이 채워지게 된다. 자연적으로 시베리아 주민들의 대다수 음식들은 육류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가축의 내장, 머리도 넓게 이용된다. 실질적으로 가축의 혀, 간, 심장, 폐 등이 모두 음식재료로 이용된다. 시베리아의 원주민중의 하나로 축치족이 있다. 축치족은 시베리아 전통음식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축치족은 야외 화로를 이용한 다양한 취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야외 화로를 이용한 순록고기 요리는 매우 뛰어나다. 특히 순록고기는 쇠고기와 맛이 비슷하지만 냄새에서 쇠고기와 많이 다르다. 시베리아 음식은 자연과의 친밀성에서 다른 지역 음식과 구별된다. 시베리아 음식에선 과장되거나 백리향 또는 샤프란 같은 섬세한 맛을 발견할 수 없다. 시베리아 음식은 배부를 때 까지 최고의 맛을 유지해 준다.²⁾

러시아 북부지방의 기후, 자연환경은 매우 혹독하다. 추운기간은 대단히 길고 그 다지 덜지 않은 여름은 비교적 짧다. 이러한 기후조건은 월예 및 농작 가능성에 많은 제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베리아는 숲, 하천, 호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여기에 사는 물고기, 짐승, 견과류, 딸기 등의 나무열매가 풍부하다. 물고기가 풍부한 시베리아 음식은 매우 건강하며 열량이 높다. 시베리아 지역에선 음식물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와 힘을 제공해야만 한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하루에 5번의 식사를 한다. 여기에는 아침을 비롯하여 정확히 정오에 먹는 <런치>, 오후의 점심, 점심과 저녁사이에 먹는 간식, 저녁이 있다. 시베리아 음식의 전통은 핀란드, 카렐리아, 스칸디나비아 전통과 매우 흡사하다. 시베리아 주민들이 자체 생산한 곡물은 매우 적어 외부로부터 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사계절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백해

1) <http://www.irk.ru/obed/articles/20121112/siberia/>

2) <http://menudlyavas.ru/traditsionnyie-blyuda-sibirskoy-kuhni/24422>

연안 주민들 사이에 <빵이 없는 것보다 물고기가 없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격언이 발생했다. 시베리아 주민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로는 대구, 광어, 북대서양 대구, 은어, 북해산 대구 등이 있다. 이들 물고기들은 삶거나 끓이며 삭히기도 한다. 또한 토막 낸 물고기에 버섯, 딸기, 야채, 죽 등을 섞기도 한다. 일부 시베리아 남부지방에서는 물고기를 냉동하여 반건조 상태에서 포를 떠서 막거나 다져서 먹는다. 물고기는 먹기 전에 살을 부드럽게 하고 뼈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잘게 찢는다.

그리고 소금 및 고추를 첨가하여 먹는다. 물고기는 찢거나 삶고, 비늘에 싸서 굽거나 우유크림을 첨가해 빛깔이 누르도록 굽는다. 또한 바람 및 햇볕, 화로에서 물고기를 말리거나 건조시킨다. 예전에는 물고기 훈제법이 없었으며 단지 20세기 초에 들어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시베리아 주민들의 생선수프에는 잘게 썬 양파, 소금에 절인 오이, 젓갈, 곡물 등을 첨가 한다. 생선수프에는 주로 바이칼연어(오물) 또는 대구가 들어간다. 그 밖에 응고우유와 식물성 기름에 구운 대구요리도 시베리아 주민들은 즐겨 먹었다. 얇은 감자조각으로 삶은 대구조각을 둘러싼 다음 삶은 양파, 응고우유, 식물성 기름, 설탕 등을 첨가하여 화로에 굽는다. 이 음식은 지방, 탄수화물, 칼슘 및 다른 미량원소들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소금을 적게 친 바이칼연어(오물)는 일반적인 러시아 북부지방의 음식 범위에서 벗어난다. 물고기에 소금을 치는 방법도 창자 제거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소금을 치는 방법 및 시간에 따라 다양한 물고기의 풍미를 맛 볼 수 있다. 특히 갓 소금에 절인 생선이 매우 부드러우며 맛이 뛰어나다. 러시아 북부지방의 주요 음식 재료는 육류, 계란, 우유이다. 육류는 주로 가축이나 야생짐승의 고기를 섭취하였다. 가정에서 널리 기르는 가축으로는 소 및 양이 있었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비록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하였으나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봄과 여름에 반야생의 돼지를 숲에서 방목하였다.

가을이 가까워지면 집에서 먹이를 주며 길들였다가 겨울에 도축한다. 시베리아 음식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시베리아 만두이다. 가장 맛있는 만두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혼합된 만두속이 채워진다. 만두를 만들 때는 가족 전부는 물론 이웃들을 불러서 겨우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만들어, 마포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얼린 다음 집의 광이나 작업장에 매달아 보관한다. 시베리아 주민들의 음식 대부분은 토끼 고기, 순록 고기, 곰 고기가 주된 재료로 쓰인다. 곰 고기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면역을 증진시켜 신체조직을 강화시킨다. 이밖에 곰 고기는 심장병, 혈관질환, 관절 질환등 만성병에 시달리는 허약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음식이다. 특히 곰 기름은 예로부터 치료수단으로 지금까지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곰 고기는 매우 단단하고 독특한 냄새 때문에 요리를 하기 전에 포도주나 식초, 야생풀로 만든 마리네이드(양념장)에 15시간 이상 담가 흠뻑 적셔야 한다. 이후엔 굽지는 말고 끓이거나 삶아야 한다. 시베리아 채소 작물은 내한성이 높고 재배하기 쉬운 채소들이 널리 재배되었는데 여기에는 호박, 순무, 당근, 사탕무, 양배추 등이 있었으며 나중에

감자와 오이를 추가적으로 재배하였다. 특히 시베리아 주민들에게 순무 흉작은 적의 침입이나 전염병 유행등과 필적한 실질적이 재난이 되었다. 야채는 기름을 사용하여 끓이는데 파이의 속을 채우는 재료로 쓰였다. 겨울에는 소금에 절인 오이를 먹었으며 여름에 벌꿀을 섞어 오이를 먹었다. 이 밖에 진미 식품으로 삼나무 열매가 있었다. 시베리아 음식에서 샐러드는 고유한 음식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시베리아 주민들의 샐러드는 다양한 차거운 간식거리로 발전되었다. 샐러드의 주요재료로는 소금과 마리오네이드에 절인 버섯이 쓰였다. 이외에도 시베리아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송이버섯, 대형황토버섯, 뽕나무버섯을 음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밖에 차가운 연어고기, 참꼬치고기, 벨루가 고기, 월굴나무 열매, 새면베리 열매, 월굴, 소금에 절인 오이, 초절인 오이들도 시베리아 주민들이 애용하는 음식재료이다. 화덕으로 요리되는 러시아인의 요리는 튀기지 않고 끓이거나 삶고 빛깔이 누르도록 굽는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 기름(지방)이 없는 음식을 만든다.

18세기말 차가 전례 되기까지 시베리아 주민들은 향기 나는 풀이나 톱니꼬리조팝나무, 까치밥나무, 박하 잎사귀를 우려먹었다. 실제적인 차가 출현하면서 차를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19세기말 <사모바르>가 출현하기 까지 구리로 만든 차 주전자로 찻물을 끓였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차를 먹을 때 호밀가루로 만든 <파이>를 곁들인다. 시베리아에서는 밀보다 호밀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이>는 산벚나무의 떼은 열매가 들어가 <파이>이다. 여름에 산벚나무의 떼은 열매를 대량으로 수확하여 건조한 뒤 가루로 만들었다. 시베리아 음식중에 <파이>와 비슷한 버터를 넣은 튀김 빵이 있다. 이 빵에는 응고우유 뿐만 아니라 감자, 물고기, 모든 열매를 빵에 넣거나 발라서 먹는다.³⁾

시베리아 지방 음식은 단지 19세기말에 들어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음식은 육류, 버섯, 물고기, 부추, 양파, 타이가지방의 향미료가 조합이 되어 조리되었으며 곰 고기 및 순록고기를 먹었다. 시베리아 음식에 대한 실제적인 애호가는 적은 편으로 주로 현지 주민들이 애용한다. 수세기동안 시베리아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생고기 및 친환경적인 육류를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러시아 서부 및 동부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베리아 음식 애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모스크바에서 많은 음식점들이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시베리아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음식중에 특히 버섯, 들새, 물고기들로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건강한 식사를 추구하여 시베리아 음식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시베리아 음식은 환경적으로 순수한 자연 상태로 요리되기 때문에 자신의 순수한 맛과 영양을 간직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는 어업과 사냥이 매우 발달해 있다. 시베리아에는 생활을 위한 깨끗한 공기 등의 좋은 자연환경 덕분에 환경 친화적인 물고기와 들새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획득하는 물고기와 들새는 아주 놀라운 풍미를 보유하고 있다.

3) <http://nazaccent.ru/content/8992-tradicionnaya-russkaya-kuhnya.html>

시베리아 음식들은 계절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짐승사냥 및 물고기 포획 시즌은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 또한 시베리아 음식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쇠고기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시베리아 지역 주민들은 쇠고기를 진미식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 주민들에게는 쇠고기를 대신하는 일반적인 육류로는 순록고기가 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식품으로는 양치류 고사리로 만든 음식이 있다. 버섯 요리는 양파와 토마토를 추가하여 육류요리의 반찬으로 사용하던지 또는 여기에 가지나 오이를 추가하여 샐러드 형태로 이용한다. 고사리는 대량의 비타민과 건강에 좋은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밖에 시베리아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마가목에 얹은> 들꿩 요리가 있다. 들꿩은 얼은 마가목 열매를 먹기 때문에 들꿩고기는 섬세한 풍미를 가진다. 시베리아 음식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북부에니세이강 물고기 포와 순록고기로 만든 요리가 있다.

시베리아 주민들은 실제 돼지고기의 입술, 귀, 혀로 만든 요리를 매우 좋아한다. 신년을 맞아 시베리아 주민들은 돼지의 다리 및 머리로 젤리를 만든다. 시베리아 음식들은 다양한 요리법과 큰 규모를 자랑한다.⁴⁾ 시베리아 음식의 특징은 바이칼연안의 음식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바이칼 현지의 약간 신맛이 있는 바이칼연어(오물)의 부드러운 맛은 시베리아 지역 외부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물고기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은 창자의 제거여부, 소금의 양과 절인시간에 따라 물고기의 맛이 매우 변화한다. 갓 소금에 절인 바이칼연어(오물)는 맛이 매우 부드러워 물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번에 물고기 꼬리까지 맛있게 먹게 만든다.

식도락가들 일부는 바이칼연어(오물)가 차가운 보드카를 마실 때 완벽한 안주라고 격찬하다. 많은 여행객들은 바이칼연어(오물)를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가져다주기를 원한다. 바이칼연어(오물) 운반을 위해 구매를 할 경우 훈제품이 비닐포장이 아닌 숨구멍이 있는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바이칼어부들의 물고기 손질법의 핵심은 물고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바이칼연어(오물)를 펼쳐서 깨끗이 씻고 흐르는 차가운 바이칼호수의 물로 세척한다. 그리고 소금한줌을 아가미, 머리, 등, 옆 부분에 뿌려 넣는다. 약간 신맛이 있는 오물은 모든 이르쿠츠크 음식점이나 바이칼 도로에 있는 카페, 또는 바이칼 호수 관광지에서 맛을 볼 수 있다. 바이칼 알혼섬에서 물고기 롤렛트 음식이 유명하다. 롤렛트는 물고기 다진 고기, 양파, 소금을 섞어 만두모양으로 만든 다음 따로 굽는다.⁵⁾

IV.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장난감문화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발전을 가지고 온다, 또한 외부세계를 인식하게

4) <http://xn----9sbubb4ahmf1byfxn--p1ai/content/20>

5) <http://fanatbaikala.livejournal.com/11789.html>

하고 장난감 놀이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장난감은 인류에게 고대로 부터 알려져 왔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출토품에서 사람 또는 동물 형태의 장난감들을 발견하였다. 시베리아 지역 고대 마을에서 사람, 동물 모양 및 도기류 유물 등이 발견되었다. 장난감들은 초기에 뼈, 나무, 점토, 식물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유리나 가죽, 철로 만들어졌다.⁶⁾ 시베리아 지역에 아이들 장난감이 언제 출현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 시베리아에서는 부드러운 돌이나 맘모스 앞니를 갈아서 만든 장난감들이 발견되었다. 장난감은 항상 모든 민족의 생활양식에 본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그들 삶의 거울이 되었다.

예전부터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장난감 제작 공장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는 집단적인 수공업으로 장난감을 생산하는 공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아이들에게도 항상 장난감이 있었다. 아이들의 어머니, 할머니, 언니 등이 한가할 때 장난감을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장난감은 나무, 뼈, 자작나무 껍질, 가죽조각 등의 일상생활 소재들로 만들어졌으며 독특한 형상을 지녔다. 장난감은 미래의 성인이 될 어린이들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⁷⁾ 에벤키족 남자아이들은 솜씨 있게 나무 잔가지로 순록들을 몰면서 성인들처럼 순록에 짐을 싣기도 하며 유목 놀이를 하였다. 부랴트족 아이들에게는 말을 묘사한 장난감들이 매우 많았다. 부랴트족은 세습 목축 민족으로 그들의 장난감은 나무나 뼈를 도려내어 만든 다양한 말 모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속학자들은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에서 장난감과 의 연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자 아이들의 장난감은 나무로 만든 자동차 형태가 많은데 화물 및 목재 운반차는 농촌 소년들에 의해, 레이싱 자동차는 도시 소년들이 가지고 놀았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는 영웅적 행위 및 군대의 낭만에 대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나무로 만든 항공기, 선박, 권총, 라이플총, 기관총 등이 관심을 끌었다. 장난감은 단지 교육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신격화 되었는데, 수많은 제례의식에 관여하고 부적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난감은 매우 존중받았으며 특별한 바구니 및 상자에 보관 되었다. 고대 최초의 아이 장난감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딸랑이였다. 현대적인 딸랑이와 구별되는 것은 장난감 소재 및 제작기술뿐이다. 한때-만시 자치구에서는 뼈로 만든 2개의 딸랑이가 발견되었다. 이 뼈들은 가죽의 다리 발굽관절로 아마도 어린양의 것으로 추측된다. 작은 뼈들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이들 구멍사이로 실을 꿰어 침대에 매달았다. 네네쯔족의 딸랑이는 자고새의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졌다. 새들의 모래주머니에 버들이나 밀짚을 채워 넣어 만든다. 딸랑이의 색상은 투명한 갈색이다.

밀살을 채워 넣은 딸랑이가 마르게 되면 손으로 가지고 놀던지 아기요람에 매달아둔다. 코미족의 딸랑이는 자작나무 껍질로 짜서 만든다. 코미족은 이 딸랑이를 <쉴>이라고 부

6) <http://www.naomuseum.ru/issled/201-igrushka-v-nashem-krae>

7) <http://www.pribaikal.ru/talci-item/article/2169.html>

른다. 코미족의 <솿>은 자작나무 껍질로 짜여진 작은 바구니이다. 여기에 조약돌이나 모래를 채운다. 이 딸랑이는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무로 딸랑이 외에도 다른 장난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나무가 농경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나무토막이나 넓적한 형태의 나무로 장난감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만들어진 통나무집에서 나무로 만든 손도끼가 발견되었다. 또한 가벼운 개썰매에 사용하는 작은 나무 조각도 발견되었다.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에선 개썰매 없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아버지가 개썰매를 만드는 것처럼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개썰매를 만들었는데 실제 개썰매와 매우 흡사하였다. 더 나아가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순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장난감 순록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장난감 순록 제작에 사용된 나무는 한쪽이 돌출되고 다른 쪽은 비스듬히 절단된 작은 나무 블록을 사용하였다. 툰드라에 사는 네네쯔족은 그들의 활동, 상거래, 대화 등이 순록 주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순록은 네네쯔족에게 삶과 재산, 자랑거리, 희망이었다. 러시아인의 구비문학, 서적, 문학작품에는 말의 형상이 뿌리박혀 있다. 러시아인들에게 말은 고대로부터 끊을 수 없는 동반자이다. 러시아 농민에게 말은 농경에서 도움을 주는 부양자이며 이야기 상대가 되었다. 장난감 말은 나무뿐만 아니라 점토로도 만들어졌다. 네네쯔족 자치구에서 점토로 만들어진 망아지가 발견되었다.⁸⁾ 고대로부터 인형은 여러 제례 의식에 참가자가 되었다.

인형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연결된 고리역할을 하였으며, 혼수상태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중개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기 인형들은 고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더나가 인형-허수아비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사람대신에 신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거의 모든 고대 슬라브민족의 제례의식에서 인형들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조들은 종교의식 과정에서 인형과 함께 있지만, 놀이나 오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정신적인 작업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형은 질병, 불행, 굶주림, 무자식을 피할 수 있는 부적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시베리아에 사는 러시아인들의 생활양식에서 형겔 인형은 가장 확산된 장난감중의 하나이다. 인형놀이는 단지 여자아이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어린이들은 인형놀이를 하였으며, 아이가 7-8살이 되어서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옷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때 남자아이는 바지를 입었고, 여자아이는 치마를 입었으며, 그들의 역할과 놀이가 확연히 분리되었다. 7-8살 이후 여자아이들은 결혼할 때 까지 인형과의 놀이에 관심이 줄어들었다. 형겔 인형은 단순 여성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 인형은 시적이며 원시적인 순수함과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인형놀이는 삶

8) <http://lepnj.narod.ru/lep6.html>

의 거울과 같은 것으로,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반영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민족의 도덕적 기반 및 미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의 민족문화에서 민족적 축일 및 제전에 인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제례의식용 인형을 만들 때에는 찌르거나 베일 수 있는 물체 사용이 금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형제작을 위해 천이나 실을 칼로 자르지 않고 찢어서 사용하였다.

네네쯔족 제례의식용 인형의 몸통은 색상이 있는 두꺼운 천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머리 부분은 여자 인형인 경우 오리 부리로, 남자 인형의 경우 거위 부리로 만들었다. 두꺼운 천 덩어리와 새의 부리 접합부분은 천 조각으로 감 싹다. 네네쯔족의 전통적인 인형에는 개성을 특징짓게 하는 눈, 코, 입 등이 없는데 특히 손과 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인형에서 손이나 다리가 없는 부분은 모피로 된 인형 옷을 감고 띠로 두른다. 이러한 인형에는 악령이나 다른 악한세력이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들 인형은 스스로에게 질병이나 불행을 대신하여 가질 수 있고, 농사 풍작을 도와준다고도 믿었다. 전통적인 러시아 인형은 형태와 장식에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수많은 농촌명절은 교회의 달력을 따라 지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인형들은 명절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 중에는 제례의식용 인형, 결혼인형, 학질인형, 집안에 행운을 주는 인형들이 포함 되었다. 이밖에 인형들을 아이의 요람에 두어 악령을 물리치기고 했다. 인형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집안에 소중히 보관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민족들의 문화에서 장난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V.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명절문화

러시아 북방지역,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소수민족들의 명절은 자연환경 및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달력의 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켜지고 있다. 달력에 나타난 토착 소수민족들의 명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⁹⁾.

[1월] ■ “마아리쉬 축제”, 케메로브 주 타쉬타골 지역에서 개최되며 소수민족 청년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축제이다. 이 축제의 목적은 민족놀이 및 민족스포츠를 널리 알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정신도덕과 문화교육 향상에 있다.

[2월] ■ “2월8일-국제 사미족 단합 민족의 날”- 무르크만스크주, 무르만스크 및 사미족이 거주하는 여러 마을들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청에서 깃발 게양식 및 원탁회의가 열리고 박물관, 도서관등에서 전시회 개최 및 각종 콘서트가 열린다. 이 축제에는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러시아에 거주하는 사미족들도 참가한다. 이 축일의 역사를 보면, 1917년 이

9) <https://7x7-journal.ru/post/21868>

날에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최초의 사미족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대공국에서 거주하는 사미족 통합체가 결성되어 국경을 초월하여 사미족 상호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1956년에 사미족 연맹이 설립되어 노르웨이 및 스웨덴, 핀란드에 거주하는 사미족의 이익을 대변하였으며 1992년부터 러시아거주 사미족 대표부가 소속되었다. 이 연맹의 회원들은 매년 열린 전체회의 <사미족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1986년에 사미족의 국기와 국가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2년 헬싱키에서 열린 15차 사미족 컨퍼런스에서 2월6일을 사미족 민족의 날로 확정하였다. 1993년에 스웨덴의 <이옥목>에서 최초의 축일을 기념하였다. 러시아 거주 사미족의 민족역사는 다음과 같다. 1866년에 알렉산드르 2세 황제의 개혁활동 결과로 사미족 마을이 설립되었으며, 이 마을로 아르한겔스현 콜스크 마을이 들어가게 되었다.

■ “순록사육의 날”- 캄차크카 지방 올류토르 지역에서 기념 한다¹⁰⁾. 토착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명절로 순록사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젊은이들에게 전통지식의 전달 및 순록사육자의 위신향상을 목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 “케메로보 주 토착 소수민족 체육대회”-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경기의 주도자는 2004년 세상을 떠난 <타쉬타골> 주민이며 광부인 니콜라이 마코로비치 이다. ■ “2월 21일 쇼르츠 민족어의 날”- 케메로브주, 노보쿠즈네끄시. 국제적인 모국어의 날로 기념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3월] ■ “순록사육의 날”- 캄차트카 지방의 브이스트린 지역 에스소 마을에서 기념한다. 이 전통명절에 순록썰매 경주를 비롯하여 북부지역 소수민족간의 각종 경기가 진행된다. 이날은 캄차트카 지방 북부지역에서 최우수자를 선발하는데 경기종목에는 2킬로미터 달리기, 손도끼 투척경기, 점프게임, 개썰매 경주 등이 있다. ■ “장거리 개썰매 경주 <베린기야>”- 캄차트카 지방 에스소 마을에서 개최된다. “베린기야”는 전통적인 개썰매 경주로서, 에스소 마을에서 오스소르 마을까지 950킬로미터를 달린다. 이 경기 참가자들은 경주로에 있는 마을을 지나면서 초봄의 도래를 거주자들에게 알린다. 개인 및 사업가, 기관들은 후원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학교 및 어린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한다. 이 경기 출발지인 에스소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여기서 민족-양상불 공연 및 기념품 전시회-판매를 비롯하여 각종 오락 행사가 열린다¹¹⁾. 이러한 행사들은 “베린기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다.

■ “북방민족 축제” - 북방 및 시베리아, 극동 소수민족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기념하는 독특한 축일이다. 북방민족 연구소 학생들과 20여개 소수토착민족 대표자들이 학습을 위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다. 이 축제는 학생들을 거대도시에 적응시키고 자신들의 작은 고향에 대한 애국심과 사랑을 고취시킨다. 또한 북방민족의 언어 및 전통, 문화의 발전과 유지, 인종과 국민간의 동일성을 조성시킨다. 토착소수민족들의 비교문화 프로그램에서

10) <http://argumenti.ru/society/2015/03/390650>

11) <http://kam-kray.ru/news/2012/02/29/bystrinskiy-sprint-sport-i-tradicii.html>

북방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간 교류에 활성화에 기여한다.

■ “쇼르츠족 민족명절 신년” - 3월 22일, 춘분점, 케메로브 주에서 기념한다. 이 축일의 각종 의식에는 전통적인 쇼르츠족 문화의 미학적인 측면과 민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산악 쇼르츠족은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이날을 기념한다. ■ “토착민족 기념일” - 3월말, 사할린 주, 포로나이스크시에서 기념한다. 기념행사로는 예술작품 축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민족그룹들의 공연 및 민족예술 수공업품 및 장식작품 전시회, 민족요리 특성 경연대회가 열린다. 그밖에 민족 스포츠 경연대회가 열리는 데 경기종목으로 장애물 넘어 달리기, 도끼 멀리 던지기, 멀리 삼단뛰기, 활쏘기,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줄다리기, 눈길 모바일스키 경주대회도 열린다.

■ “알타이 민족명절 춘분(질가이악)”-알타이공화국에서 봄 춘분에 기념하는 축일이다. 풍습에 따르면 이른 아침 해맞이 의식을 하면서 축일이 시작된다. 이 의식은 마을의 원로들이 행한다.¹²⁾ 처음에 “제례용 불”을 지피고 우유를 뿌려준다, 그리고 빵조각으로 “제례용 불”에 식사를 제공한 다음 풍년을 기원하는 소리를 낸다. 이후 스포츠 시합 및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스포츠 경기종목에는 허리띠 싸움, 채찍으로 공을 쳐서 떨어뜨리기, 돌 올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등이 있다. 또한 축제기간에 각각의 마을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음식 요리솜씨 경연에 참가한다. 그밖에 미녀선발대회 및 민족의상, 가보 자랑대회등도 열린다.

■ “사냥꾼 축일” - 코미공화국, 이젠펜 지역에서 열린다. 이젠펜 지역 민족들은 사냥과 순록사육에 종사해 왔다. 이 축제의 목적은 사라진 사냥꾼들의 전통을 복원시키고 사냥문화 보존에 있다. 축제 사냥경기 대회에서 사냥꾼들은 창과 도끼를 목표물에 던지고 활을 쏜다, 또한 스키를 타고 산에서 이동하면서 장대를 사용하여 눈 쌓인 장벽을 통과한다. 이밖에 사냥꾼 복장에 대한 경연, 노련한 사냥꾼 및 젊은 사냥꾼의 장애물 코스 경기, 스키 타기 경주 등이 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활태도 형성을 위한 의식재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사냥꾼 및 순록사육자의 날” - 이루쿠츠크 주, 카탄 지역에서 기념한다. 축제에서 사냥꾼 및 순록사육자들을 축하하고 사냥시즌 결산을 통하여 선물과 상패 등을 증정한다. 축제에선 순록 포획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냥경기가 개최되며 창작, 예술작품 공연도 열린다.

■ “북방 축제 -케르헬렘 페이브” - 무르만스크 주, 크라스노셀리에 지역에서 기념한다. 3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순록 포획 및 순록 줄다리기, 썰매타기, 투척, 개썰매 달리기, “사미족 전투” 등의 대회가 열린다. 9.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순록사육자 경기” - 3-4월에 개최된다. 이 경기에는 자치구 모든 지역의 순록사육자들이 참가한다.

12) http://xn--90ao6b.xn----8sbwdbcc3abhth9e.xn--p1ai/?page_id=3471

■ 셀쿠프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 “새들의 도착”-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크라스노셀리쿠프 지역에서 기념한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봄과 가을에 “새들의 도착”을 기념하는 전통 의식이 행해진다. 축제기간에 첫 번째로 잡은 들새나 철새로 천신에게 공양하며 조속한 여름의 도래와 더불어 철새의 복귀, 모든 사람의 건강, 가을의 풍족한 수확을 기원한다.

[4월] ■ 한티족의 민족 명절 “까마귀의 날” - 4월 초, 네네쯔 자치구에서 기념한다. “까마귀의 날”은 북방민족 토착원주민들이 기념하는 축일로 까마귀가 여자와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까마귀는 북부지역으로 날아든 최초의 새들 중 하나로 원주민들은 까마귀를 자연과 삶에서 부활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이 축일은 우랄과 야말 남부에 인접한 한티족 및 네네쯔족들이 기념한다. 이 축일에는 초기 한티 민족의 세계와 자연, 종족의 관습, 전통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축일은 한티족의 중요 명절중의 하나로 봄의 도래와 새들의 도착, 새로운 생명의 탄생 등을 의미한다. 축제기간에는 공동의 전통의례, 교류, 휴식을 통하여 성스러운 장소에서 친족들을 만날 수 있다. 축일에 주신인 “흙 투름”과 집안의 영혼에 대해 숭배의식을 거행한다.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스카프, 두꺼운 천 조각, 의류용 직물 등을 선물 한다¹³⁾. 이날에는 모두 함께 노래와 춤을 추고 게임 등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 축제기간동안 한티족은 하늘, 중앙, 아래의 신들에게 숭배의식을 시행하고 자작나무가지에 직물 쪼가리나 리본을 걸어둔다. 한티족의 신앙에서 나무는 세계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 도착 소수민족 어린이 작품 축제 “엘림” - 케메로프 주, 미스키 지역에서 기념한다.

■ 개썰매 경주 “희망”, 추코트카 자치구, 개썰매 스포츠 경기. ■ 스포츠 축제 “베가” - 추코트카 자치구. ■ 순록사육자 체육문화 축제 “릴레트” - 추코트카 자치구. ■ 사미족 음악 축제 “모아이나스 란”- 4월 마지막 토요일. 무르만스크주 알레네고르스크 지역에서 기념한다. 사미족의 전통노래 축제 및 어린이 영화 축제 “이야기 나라”가 개최된다.

[5월] ■ “새끼 순록 탄생” 축제 - 5월 초, 네네쯔 자치구에서 기념한다. 5월은 툰드라 지역에서 야생의 약탈자와 나쁜 날씨 때문에 순록사육자들은 순록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잘 주어야만 한다. 순록은 네네쯔족에게 삶의 상징이며 새끼순록의 탄생은 삶의 지속을 의미한다. 경험이 있는 순록사육자들은 미리 임신한 순록을 위해 방목자리를 선택한다. 그곳은 눈과 얼음이 녹은 곳으로 많은 지의류가 있어 임신한 순록이 먹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다. ■ 셀쿠프족의 전통적인 명절 “북방의 새벽” - “새들의 도착” 의식으로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타르코-살레 지역에서 기념한다.

[6월] ■ “사미족의 여름 운동회” - 6월 2번째 토요일, 무르만스크 주에서 기념하며 스포츠게임, 음악회, 수공업품 전시회, 전통 음식경연 대회가 열린다. ■ “첫 물고기 수확 축제”, 캄차트카 지방,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이에서 행해진다. 이 전통적인 명절

13) <http://etnic.ru/news/voronyi-den-pochemu-khanty-poklonyayutsya-vorone.html>

은 토착원주민이 캄차트카 하천에서 최초로 연어를 맞이한 날을 기념한다. 축제의 의식행사에서 첫 번째로 잡은 물고기를 환영하며 연못에다 데려다 놓고 자연과 불, 물에 공양물을 바친다. 축제 프로그램에서 민족전체의 음악회, 경연대회, 게임 등이 진행된다. 그밖에 민족 전통 헤어스타일 및 민족의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 에벤족 민족명절 “누르게넥”- 에벤족 달력에 따른 신년 맞이(하짓날) 명절로 캄차트카 지방, 아나브가이 마을에서 기념한다.¹⁴⁾ 명절 전통에 따라 에벤족은 노간주나무 세례식과 불에 대해 공양의식을 거행한다. 축일 밤 정오에 텀버린 소리에 맞춰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둥글게 모여 “노르갈리” 춤을 추게 되는데, 고리(원형)는 태양을 상징하고, 팔은 햇빛을 상징한다.

■ 유카기르족 축일 “쇄할이베”- 태양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사하공화국, 야쿠치아에서 기념한다. “쇄할이베”는 유카기르어로 모든 종족의 회의라는 의미이다. 축제는 불에 대한 공양으로부터 시작 된다. 마을 원로 남자는 태양과 불에 기원을 하며 짐승고기, 물고기 등을 공양한다. 이후 축제를 기념하는 연주회와 마을 거래시장이 열린다. 태양과의 만남에 앞서 남자와 아이들은 힘과 날렵함을 겨루는 시합을 가진다. 경기종목에는 투척,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짐승의 가죽덩어리로 만든 공을 사용하는 유카기르족의 축구시합 등이 있다.¹⁵⁾ 축일 해맞이 행사에서 유카기르족은 독특한 모양의 아치형 문을 통과하면서 낙엽송 잔가지로 약하게 휘두르는데 이는 정화를 의미한다. 이후 한쌍의 무용수를 둘러싸고 참가자들은 윤무를 추기 시작한다.

[7월] ■ 전통적인 명절 “어민의 날”,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 한티족의 전통 민족명절 “한여름”,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8월] ■ “네네쯔족의 한여름 축일“, 야말로-네네쯔 자치구에서 축제는 8월초 한여름에 열리며 특히 어부들이 이 축제를 널리 기념하고 있다. ■ “에벤키족의 자연의 날”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 열리며 에벤키족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알림과 동시에 환경 및 민족-관광 발전을 도모한다. ■ 순록사육의 날”, 8월2일, 코미공화국, 이췌 지역.

■ 코미족의 축일 “일리아 선지자의 날”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 에베키 전통 의례 명절 “만남”, 이르쿠츠크주 카탄그 지역, 이 축제는 사냥시즌에 앞서 “니즈니 퉁구스카” 강가에서 열린다. 에벤키족은 명절 의식에서 불에 공양을 드린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리본을 매달아 조상을 추모하고 노간주나무를 태워 신성한 연기를 만든다. 축일에 에벤키족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풍족한 사냥 및 물고기 잡이를 비롯하여 친족 및 지인들에 대한 건강과 성공적인 한해가 되도록 기원한다. 이 축제기간에 민족 스포츠 경기 및 민족고유의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다. 민족공예품 전시회 및 원형 집단 춤이 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한다.

14) http://www.kamlib.ru/library.php?page=res6_kalin

15) <http://yakutiakmns.org/archives/4274>

■ 극동지역 원주민 예술적 수공업 제품 축제 “살아있는 시간의 실”, 하바로프 지방.
■ 북방 토착소수민족의 작품 페스티벌 “황금의 샘” 캄차트카 지방. ■ 고래 축제 “폴리아”, 추코트카 자치구.

■ 야생 유용식물 축제 “어디서 약초가 자라는가”, 8월 마지막 토요일, 캄차트카 지방.

[9월] ■ “가을 민속게임”, 9월 첫 번째 휴일, 무르만스크 주. ■ “북부지방 민족들의 구비문학 축제” -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 이텔멘족의 전통축일 “알할랄라이”, 9월 상순, 캄차트카 지방, 코르반 마을에서 기념한다. “알할랄라이”는 이텔멘족의 가을명절로 여름의 마감을 기념하며 물고기, 육류, 딸기, 버섯 등의 자연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12월] ■ 코랴족의 전통 명절 “홀롤로”¹⁶⁾, 11월-12월 캄차트카 지방,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 지역에서 기념한다, 이 명절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행사가 치루어진다. 해안 거주 코랴족들은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사냥에서의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명절을 준비한다. “홀롤로”는 바다짐승들이 내는 소리를 모방한 것이다. 축일에 가정부인들은 손님을 맞이하여 풀을 나누어 주며 민족음식을 대접한다. 명절의 주요행사로 민족음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이명절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행운의 나무”만들기 의식을 시행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어린나무가지들 모아 곶, 양 모양을 만들어 순록의 힘줄과 풀로 감싸 묶는다. 그밖에 곶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면서 악령을 몰아내기도 한다

VI. 결론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생활-예술문화, 음식문화, 장난감문화, 명절문화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을 분석하여 문화별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식문화 : 축치족 여성들의 경우 모피를 만들고, 옷 및 신발을 만들었다. 이들의 겨울옷은 안과 바깥에 모피가 있는 2겹으로 된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바다코끼리 창자로부터 레인코트 및 방수 옷을 만든다. 기본적인 여성복은 넓은 소매가 있는 털 콤비와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신발 형태로는 순록가죽으로 만든 무릎까지 오는 가죽신발이 있다.

■음식문화 :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식품에는 순록 및 해양 동물들의 고기 및 기름이 있다. 또한 물고기나 물고기 알은 소금에 절여 먹거나 훈제를 한다. 바다동물의 고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식물성 첨가물을 혼합한다. 그밖에 야생풀, 뿌리, 나무열매, 미역 등을 주로 섭취한다. 이들은 난쟁이버들, 팽이밥, 식용뿌리 등을 고기와 피를 섞어 동결시켜 발효시킨다. 바다코끼리의 고기 및 기름을 섞어 빵은 뿌리로 작고 둥근 빵을 만들기도 한다.

■주거(건축물)문화 : 전통적인 유목인들의 집은 통구스족 형태의 원추형 이동천막이

16) <http://www.folkcentr.ru/koryakskij-obryadovyj-prazdnik-xololo-ololo/>

다. 여름에는 천막위에 거친 양가죽을 씌우며 겨울에는 순록 가죽을 씌운다. 예전에는 야쿠트족 형태의 원뿔형 집 및 바라크를 지었으나 러시아인들이 이주해오면서 썰매위에 만든 움막 및 받침대가 있는 작은 집을 건축하여 살기시작 했다.

■ 수송문화 : 축치족은 필요한 경우, 사냥꾼들이 사냥을 위해 뗏목 또는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수송에 이용되는 순록을 이용한다. 돌간족은 퉁구스민족의 순록타기 및 순록썰매 이용 전통을 자신들에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 순록사육을 시작했으며 여름에는 순록을 개인이동수단 및 짐 운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겨울에는 많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 순록을 한 줄에 몇 마리씩 묶어 썰매를 끌도록 하였다. 순록썰매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네네쯔족 및 느가나산족의 썰매와 비슷하다.

■ 음악문화 : 한티족 및 만시족의 음악은 의식에 사용되는 종교적인 성가로 민속에 전해지는 기악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이들 음악의 고전적인 장르에는 이야기, 노래, 전설, 수수께끼 등의 이야기를 담은 민속음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악기로는 입으로 연주하는 소형하프, 나무덩어리 전체를 도려내어 만든 현악기인 비파, 북(부벤), 7현 하프 등이 있다.

■ 사냥문화 : 동물주둥이-올가미 및 규모가 큰 활과 화살로 야생순록을 사냥한다. 19세기 말부터 사냥에 총과 독이든 총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총알의 독은 야생순록의 냄새가 나는 기름으로 만들었다. 얼음아래에 있는 물고기 등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말총이나 실로 만든 고정된 그물을 사용하는데 그물을 작대기에 매달아 물에 흐르게 놓아둔다. 그물을 사용한 물고기 잡이에서, 산악 하천에서의 사냥처럼 순록이 힘을 이용하여 그물을 잡아당긴다.

■ 장난감문화 :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장난감에는 인형과 딸랑이가 있는데 인형에는 개성을 특징짓게 하는 눈, 코, 입 등이 없고 특히 손과 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형에는 다양한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들 인형은 스스로에게 질병이나 불행을 대신하여 가질 수 있고, 농사 풍작을 도와준다고도 믿었다. 딸랑이는 자고새의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졌으며 색상은 투명한 갈색이다. 새들의 모래주머니에 버들이나 밀짚을 채워 넣어 만든다.

■ 놀이문화 :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놀이에는 생활에서 행해지는 경제 활동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스포츠를 겸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놀이 등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를 겸한 놀이에는 《손가락 힘》 놀이, 그룹 간 당기기 놀이, 높이 뛰기 놀이, 올가미 투척 놀이, 물건 지고 달리기, 순록 몰이 놀이, 순록 타고 달리기 등이 있다. 오락용 놀이에는 《솔개》 놀이, 물건잡기 놀이, 순록과 늑대 놀이 등이 있다.

■ 결혼문화 :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들 결혼문화의 특징은 중매와, 조혼, 결혼사례금, 신부지참금등에서 나타난다. 결혼은 대부분 부모간의 중매로 성사되며, 만약 부모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중매를 대신해 준다. 나이가 많은 부모들 중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주 어린나이에 결혼을 시킨다. 때때로 부모들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들의 결

혼에 대해 미리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의 지참금은 결혼사례금의 절반가량 형성되었는데 신부 부모의 재산정도, 아이의 숫자, 부모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다.

■ 장례문화 : 돌간족은 죽은 자를 땅속에 매장하며 복잡한 무늬가 장식된 통나무 구조물을 무덤위에 설치한다. 그리고 무덤주변에서 순록을 죽이고 주검의 옷이나 소지품은 무덤주변에 두거나 나무에 매달아 둔다.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영혼이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었다. 환생을 위해서는 장례식 전에 작은 나무나 금속으로 특별한 인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이 인형은 보통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고인이 숭배했던 토템에 해당하는 동물에 따라 인형의 모양도 달라진다. 이 인형은 영혼을 보관하는 특별한 저장소 역할을 한다.

■ 명절(축제)문화 : 시베리아-북극권 소수민족 축제에는 달리기시합, 싸움, 활(창)쏘기, 바다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뿔 판에서 도약경기, 순록 및 개썰매 경기, 춤, 텀버린 연주, 무언극 등이 행해진다. 이밖에도 아기분만, 초보사냥꾼의 첫 성공을 감사하는 기념축제도 벌어진다. 축제행사에는 절대적으로 제사공양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순록, 고기, 순록 뿔 형태의 조형물, 개 등이 있다.

■ 종교(샤머니즘)문화 : 종교적 신앙 및 숭배를 바탕으로 애니미즘 및 생산을 위한 숭배사상, 영혼관, 세계관을 고찰한다. 한티족의 문화에는 곰의 숭배가 매우 두드러지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숭배 사상 등의 전통적 신앙체계가 있다. 축치족의 세계관의 경우 모든 것이 생존하는 땅(육지),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하늘, 병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지하세계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 설화(신화)문화 : 한 민족의 설화는 그 민족이 자신의 자연과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 나오면서 축적된 문화인자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원형 자산이다. 그리고 설화에는 세계의 생성과 인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각종 기원설화, 동물 설화 등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상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들 문화 양상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문화동화 현상의 모델로, 북부 야쿠트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에벤끼족, 에벤족, 느가나산족, 에네쯔족, 돌간족 음악이 상호 유사성이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축치족의 음악은 코랴크족, 에스키모인, 유카기르족의 그것과 연관성이 깊다. 문화진화 현상은 축치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9세기 말까지 거대한 족장시대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시스템으로 교체되었고 초기 노예제도가 있는 족장시대는 이웃종족과의 전쟁이 중단된 이후 사라졌다. 상반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로, 만시족은 18세기에 정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신앙이 여전히 만시족의 생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축치족은 19세기에 사유재산 및 재산불평등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공동생활, 집단결혼, 형제의 과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습관들은 유지되었다.

에벤키족의 경우 거주지역의 산업화로, 에벤키족의 사냥터와 순록 사육지가 줄어들어, 전통적인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전통 놀이 등의 정신적인 문화 및 물질 문화적 요소를 사라지게 만드는 문화소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돌간족의 경우, 자신의 구비문화를 야쿠트족, 예벤키족, 러시아민족의 우화들과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우화로 보존하는 문화융합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문화 수용 현상은 축치족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축치족은 개가 끄는 썰매를 이용할 때 개들을 부채꼴로 묶는 방법을 에스키모인으로 부터 배우고, 개들을 무리로 묶는 방법은 러시아인에게서 배웠다. 또한 가옥의 형태 및 구조는 에스키모인의 가옥을 모방했다.

Добыча и экспорт крабов в России

Слепченко В. В.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Халлим)

Добыча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ба в России началась более века назад. Первые партии этого ценного сырья стали поступать на рынки уже в семидесятые годы XIX века. В то время основными местами промысла краба были залив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а также прибрежные воды Камчатки. В те времена краб не подвергался обработке и сбывался в сыром виде. Это было вызвано отсутствием технологий длительного хранения. Первые удачные попытки консервирования крабов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в конце 90-х гг. XIX века на Камчатке, а в 1908 году в бухте Гайдамак (Приморье) была открыта небольшая фабрик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крабов, которая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всего шесть лет до 1914 года. Впоследствии Перв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революция 1917 года и последовавшая за ней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остановили развитие крабовой отрасли, и добыча крабов практически прекратилась¹⁾.

В этот период основная добыча крабов в этом регионе приходилась на Япони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тсмутским мирным договором, который был подписан в 1905 году, Япония имела права на вы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доль вс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Учитывая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японские предп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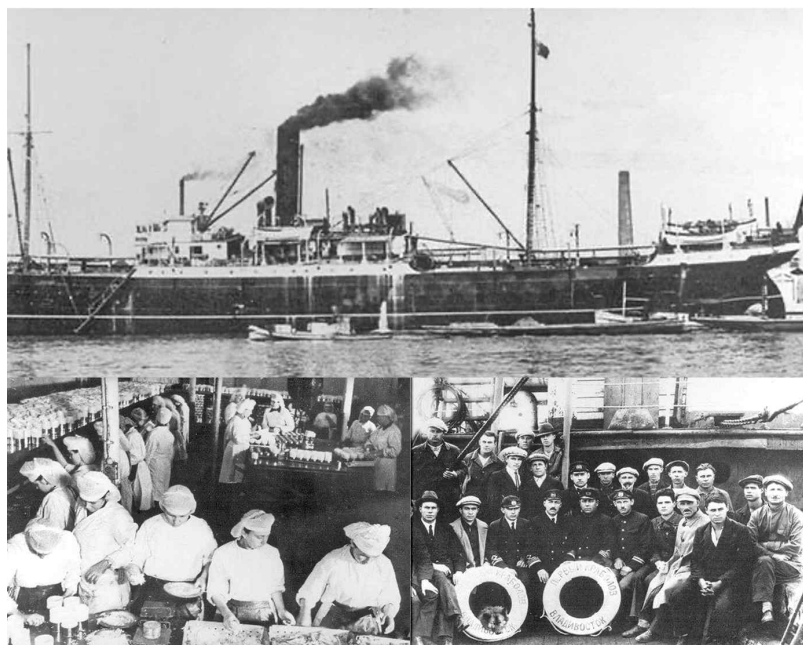
1)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Fishnews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fishnews.ru/mag/articles/10171> (21.08.21)

иятия стали строить заводы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крабов. В основном та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троились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Это было обусловлено близостью к местам лова. Так, в 1916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Парамушир был построен первый крупный крабоконсервный завод. А уже через год на Курилах действовало уже 14 заводов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то добычу крабов и их переработку совет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могли возобновить только к 1920 году. А в 1923 году продукция стала отправляться уже на экспорт. Однако основным экспортером краба оставалась Япо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теснить япо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й крабовый флот. В 1927 году торгпредство СССР в Япон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нициировало поиски судна для переделки его в крабоконсервный завод. Вскоре в 1928 году подходящее судно было найдено. Им оказался японский сухогруз «Тайя-мару» грузоподъемностью 2750 тонн и длиной корпуса 95 м. Далее в порту Осака в рекордные по тем временам сроки был произведен ремонт, установле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уже весной, к началу путины, «новоиспеченный» советский крабоконсервный завод был готов к совершению своего первого рейса в направлении западного берега Камчатки. 15 марта капитан этого первого плавзавода А. И. Дудник поднял на судне советский флаг. Судно получило символическое название «Первый краболов»²⁾.

Затем в связи с осложнением отношений СССР и Японии в области рыболовства, а также с укреплением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японских промысловиков стали постепенно вытеснять из советских вод и с советских краболовов.

2) Там же



Плавучий завод «Первый краболов» (1928 г.)

Источник: <https://fishnews.ru/mag/articles/10171> (21.08.21)

В период 1960-70-х гг.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началась актив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крабодобывающего флота. В 1973 г. был построен плавзавод «Сергей Лазо», который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пустя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его создания вышел на промысел крабов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Камчатки.

На том момент на плавзаводе применялись новейшие технологии лова. Одной из них были конические ловушки. Эта технология была заимствована у японских краболовов.

В период с 1970-х до начала 1990-х годов крабовая отрасль находилась на подъеме. В этот период повсеместно стали применяться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 добыче и переработке краба, начали осваиваться большие н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лова. Кроме того, велась научная работа: профильные институты проводили комплекс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изучению и сохранению популяции краба³⁾.

3) Там ж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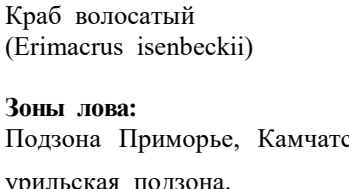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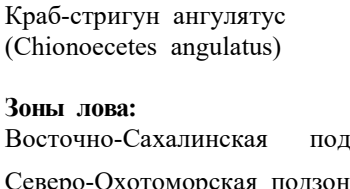
Ловля краба в СССР (1950-е гг.)

Источник: <https://fishnews.ru/mag/articles/10171> (21.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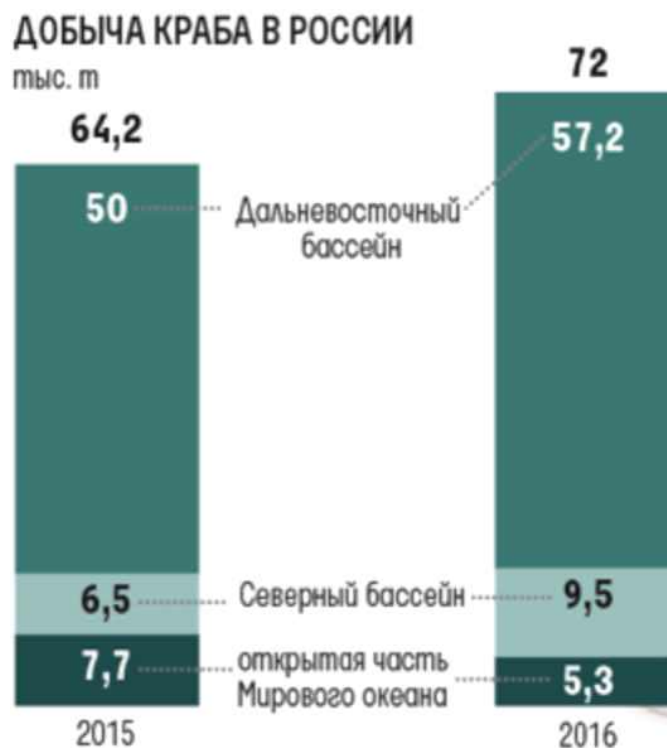
Несмотр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1990-х гг., с начала 2000-х данный секто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ереживает очередной виток рост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и добывается 9 видов краба. К основным промысловым видам относятся: краб камчатский (*Paralithodes Camtschaticus*), краб синий (*Paralithodes platypus*), краб равношипый (*Lithodes Aequispinus*), краб колючий (*Paralithodes brevipes*), краб-стригун опилио (*Chionoecetes opilio*), краб-стригун Бэрда (*Chionoecetes Bairdi*), краб четырехугольный волосатый (*Erimacrus isenbeckii*), краб-стригун ангуляту с (*Chionoecetes angulatus*), краб-стригун красный (*Chionoecetes japonicus*).



<p>Краб камчатский (<i>Paralithodes Camtschaticus</i>)</p> <p>Зоны лова: Подзона Приморье, Западно-Камчатская подзона, Камчатско-Курильская подзона, Северо-Охот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 синий (<i>Paralithodes platypus</i>)</p> <p>Зоны лова: Западно-Камчатская подзона, Западно-Берингов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 Северо-Охот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ая подзона, Карагинская подзона, Подзона Приморье.</p>	<p>Краб равношипый (<i>Lithodes Aequispinus</i>)</p> <p>Зоны лова: Северо-Охот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я подзона, Западно-Камчат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 колючий (<i>Paralithodes brevipes</i>)</p> <p>Зоны лова: Подзона Приморье,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стригун опилио (<i>Chionoecetes opilio</i>)</p> <p>Зоны лова: Северо-Охот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 Подзона Приморье, Западно-Берингов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стригун Бэрда (<i>Chionoecetes Bairdi</i>)</p> <p>Зоны лова: Камчатско-Курильская подзона, Западно-Берингов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 Карагин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 волосатый (<i>Erimacrus isenbeckii</i>)</p> <p>Зоны лова: Подзона Приморье, Камчатско-Куриль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стригун ангулятус (<i>Chionoecetes angulatus</i>)</p> <p>Зоны лова: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ая подзона, Северо-Охотоморская подзона.</p>	<p>Краб-стригун красный (<i>Chionoecetes japonicus</i>)</p> <p>Зоны лова: Обитает только в Японском море.</p>
		

Добыча краба в России проводитс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ссейне, Северном бассейне и открытой части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Большая часть крабов добываетс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ссейне. В 2017 году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ссейне было выловлен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80% всех крабов, добытых в Росс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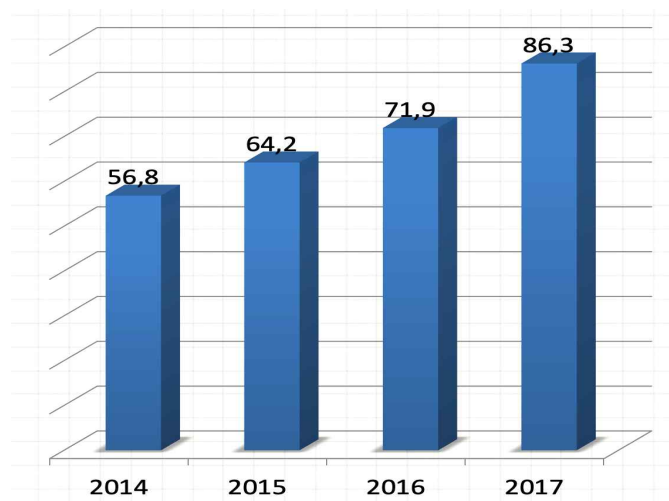


География добычи краба в России (тыс. тонн)

Источник: Ведомост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23.11.17.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amp.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7/11/23/742783-fsb-rinok-kraba> (режим доступа: 21.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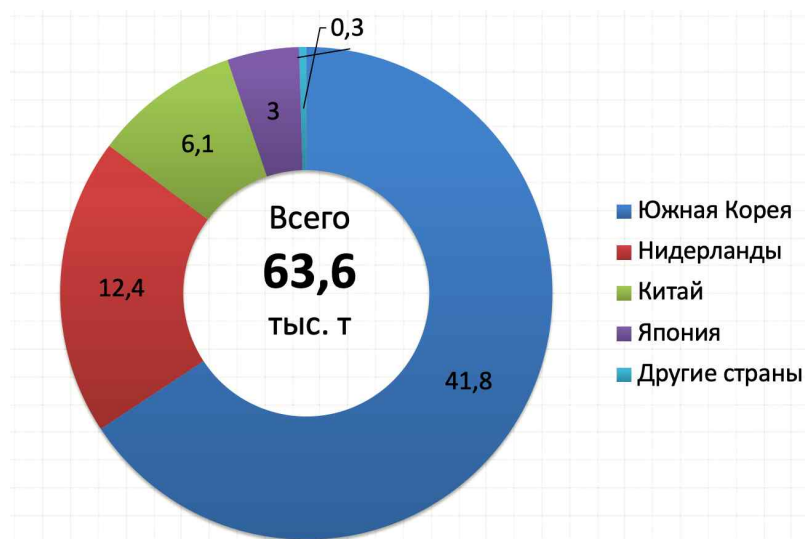
Начиная с 2014 года добыча краба в России уверенно растёт. В 2017 году было выловле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раба (86,3 тыс. тонн).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4 годом добыча краб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35%. Рост продолжался до конца 2019 года, после чего начался спад, вызванный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ъемы добычи краба в России (тыс. тонн)
 Источник: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https://fish.gov.ru> (21.08.21)

Большая часть крабовой продукции уходит на экспорт.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7 год, 72% краба, выловленного в России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за рубеж.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поступило не более 27% добытой продукц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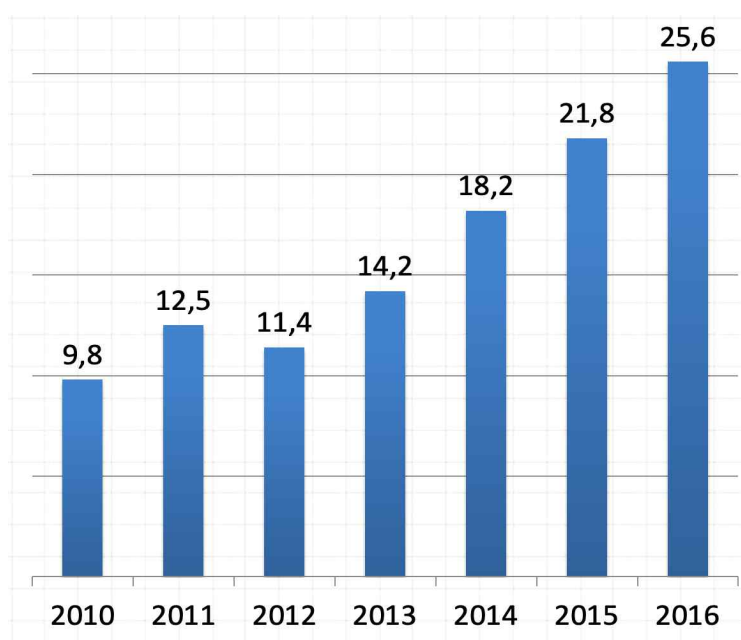
Основными импортерами российского краба на 2017 год являлись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41,8%), Нидерланды (12,4%), Китай (6,1%) и Япония (3%).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ого краба в 2017 г. (тыс. тонн)
 Источник: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https://fish.gov.ru> (21.08.21)

Доля экспорта краба в Китай постоянно росла. Так, к 2019 году она стала составлять 17%-19% от общих поставок за рубеж. Однако с 2020 года поставки краба в Китай практически прекратились. По мнению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Александра Соловьева,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китайцы практически перестали ходить в рестораны. Что касается Южной Кореи, то ситуация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е сильно повлияла на поставки в эту страну⁴).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и с переработкой краба. Так, до пандеми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ая отрасль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Наибольший рост приходился на 2016 год. В этом году на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было переработано 25,6 тыс. тонн краба. Это на 15% выш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редыдущему году. После 2020 года объемы переработки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лись.



Динамика роста переработки краба в России (тыс. тонн)
Источник: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https://fish.gov.ru> (21.08.21)

4) Интерфакс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19.03.20.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interfax.ru/business/699963> (21.08.21)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рабовая отрасль РФ продолжает расширять объемы добывания этой этого вида ракообразных, а также реализуе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раболовного флота и применяем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обработки, хран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продукции. В 2016 год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промысле краба работало 95 судов, в основном средне-тоннажные. Маломерных судов было всего 12 (при этом на их долю приходилось только 2,3%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добычи)⁵⁾.

С начала 2000-х гг. крабовая отрасль в РФ переживает поэтап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Так, если в 1990-е гг. промысел велся в основном судами, производящими варено-мороженые и сыромороженые конечности краба, 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краб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живом виде из района промысла в российский или иностранный порт.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были продиктованы потребностью рынка стран АТР. Впервые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тали строить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краболовные суда. Первым таким судном стал краболов «Русь»⁶⁾. В 2021 году после двух л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шел со стапелей Восточной верфи очередной краболов «Аян». В будущем предприятие планирует выпустить еще четыре судна этого типа⁷⁾.

5)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Port News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portnews.ru/comments/2359/> (21.08.21)

6) Министерство развития ДВ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minvr.ru> (21.08.21)

7)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Vostokmedia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vostokmedia.com/news/society/21-08-2021/noveyshee-krabolovnoe-sudno-spustili-na-vodu-v-primorie> (21.08.21)



Первое построенное в России краболовное судно «Русь»
Источник: Министерство развития ДВ. <https://minvr.ru> (21.08.21)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лагает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усилий на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краболовную отрасл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ов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уже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добычи краба в два раза. Применяемые в этом проекте технологии позволяю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мысел крабов на глубинах до 2500 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новной промысел, где вылавливают более 90% всех биоресурсов, проходит на глубине до 400 метр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крабов, то их добывают на глубине до 1200 метр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лидером в этой отрасли является рыболовецкий колхоз «Восток-1»⁸⁾. Менее чем за 20 лет колхоз для освоения глубоководного промысла провел модернизацию своих судов,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мог начать осуществлять добычу на глубинах до 1400 метро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х работ на этих глубинах, добыча краба в этих

8) Рыболовецкий колхоз «Восток-1»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vostok1.com/press-tsentr/news/news_23.html (21.08.21)

диапазонах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ает улов. Максимальный же улов возможен на глубинах до 2500 метров. Поэтому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акой глубоководной добычи краба колхоз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мерен провести очередную модернизацию.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глубоководный промысел более 4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течение 3 ле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преференций рыболовецкий колхоз «Восток-1» намерен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а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Что касается перспектив развития, то крабовая отрасль Росс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меет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аращивания объемов добычи, переработки и экспор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краболовных судов, модернизац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их переработки, а также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лова создают необходимую основу для развития этой отрасл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ют и такие механизмы, как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и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е значитель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компаниям, работающим в области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крабов. Что касается экспорта этого сырья, то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 партнером является Южная Корея. В отличие от Китая,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спрос на крабов в этой стране оставался стабильным,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долгосрочной эк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Литература

1. Ведомост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23.11.17.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amp.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7/11/23/742783-fsb-rinok-kraba>
2.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Fishnews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fishnews.ru/mag/articles/10171>
3.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Port News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portnews.ru/comments/2359/>
4.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Vostokmedia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vostokmedia.com/news/society/21-08-2021/noveyshee-krabolovnoe-sudno-spus-tili-na-vodu-v-primorie>
5. Интефакс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19.03.20.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interfax.ru/business/699963>
6. Министерство развития ДВ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minvr.ru>
7.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fish.gov.ru>
8. Рыболовецкий колхоз «Восток-1»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vostok1.com/press-tsentr/news/news_23.html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